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6년 9월 13일 화요일 제1482호

‘이재용 시대’ 성큼 살아난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 책임경영 강화
‘리콜악재’ 7% 급락했던 주가 하루만에 5% 급등하며 출발



‘이재용의 삼성’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이에 화답하듯 전날 7% 가까이 빠진 삼성전자 주가는 13일 개장 초반 4.71% 껑충 뛴 153만4000원으로 출발했다. ▶관련기사 2·3면

삼성전자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재용 〈사진〉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갤럭시노트7’의 발화 이슈로 난관을 맞고 있는 삼성전자를 이 부회장이 법적 책임을 지는 이사회 일원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서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COO(최고운영책임자)로서 수년간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고 이건희 회장 와병 2년 동안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실적 반등, 사업 재편 등을 원만히 이끌며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등 전략적 의사결정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 부회장이 이사회 일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추천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내달 개최되는 임시주총에서는 이 부회장의 이사 선임에 맞춰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상훈 사장이 이사직을 사임,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인 현 체제를 유지한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내이사 등재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보폭이 지금보다 더 넓어진다는 의미다. 지난 2년여간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신해 물밑에서 회사 경영에 참여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부회장이 삼성의 공식적 대표로서 책임경영을 해나가게 된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미래 10년을 위한 삼성의 기틀 마련에 주력해 왔다. 핵심 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했고 동시에 기술력 있는 해외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하며 삼성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만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 사업과 신사업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불거진 ‘갤럭시노트7’ 이슈를 책임지고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지영 기자 gutjy@

이재현 CJ회장, 6개월 내 경영 복귀

“사면 후 건강상태 빠르게 호전
유전병, 인지·판단능력과 무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이재현〈사진〉 CJ그룹 회장이 이르면 내년 초 경영에 복귀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8면

CJ그룹 고위 관계자는 13일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내년 초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희소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내년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 현재 병원에서 경영보고를 받으면서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CJ그룹 홍보실 측도 “특별사면 이후 심리적으로 안정되다 보니 예전에 비해 1kg 이상 몸무게가 느는 등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며 “아직 치료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경영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내년에는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J그룹 경영진은 이 회장의 경영 복귀 시점을 6개월 이내로 보고 있다.

의료전문가들 역시 이 회장이 앓고 있는 유전병이 육체활동에는 상당한 지장이 있겠지만, 정신적인 부분과는 무관한 만큼 경영활동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360억 원대 조세포탈 및 횡령이라는 기업범죄로 2015년 12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병을 앓고 있는 데다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데 따른 거부 반응 등 부작용이 심해지면서 건강이 크게 나빠져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 연장, 실제 수감 생활은 4개월밖에 하지 않았다. 이선애 기자 lsa@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동자동 서울역 승강장에서 한 가족이 밝은 표정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건물 내진율 고작 33%

공공건물 내진율 17%에 그쳐
재난 안전시스템 재정비 시급



12일 저녁 경북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경남 김해대로 한 주상복합건물 내 대형 식당 천장 일부가 폭탄을 맞은 듯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연합뉴스

경북 경주에서 5.8 규모의 역대 최대 강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계속되면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잦은 지진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건물 내진설계와 안전교육 등의 준비가 취약해 진도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예상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3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설계가 확보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에 불과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43만9549동 중 47만5335동에만 내진확보가 돼 내진율 33%에 그쳤다.

내진설계 기준 대상인 공공시설물 12만7306개소의 내진율은 40.9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공건축물 5만1903개소의 내진율은 17.27%, 학교시설 2만131개소의 내진율은 22.62%로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대피시설로 쓰이는 학교 역시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을 보면 내진성능을 6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과 오산 2곳에 불과했다. 반면 학교 내진성능 확보 20% 이하 지자체는 경북 19개, 경남 13개, 전남·전북 12개, 강원 8개, 충남·경기 7개 등 96개(41.9%)에 달했다.

제주공항, 김포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의 시설물들도 안전에 취약한 상태다. 지난달 기준 전국 14개 공항 시설물 117곳 중 46곳(39.3%)은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안전처는 전날 지진 발생 후 수분이 지난 뒤에야 진앙 반경 120km 이내 지역에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고, 서울을 비롯한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는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았다. 홈페이지는 다운돼 추석을 앞둔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처럼 한반도가 지진에 노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안전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필 기자 roman@

産銀, 오성엘에스티 헐값 매각 논란

장부가 주당 1500원인데 500원에 계약… ‘자회사 털어내기’ 손해 보는 장사

KDB산업은행의 출자회사인 오성엘에스티가 주당 500원에 매각되면서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장부가가 1500원인 점과 비교하면 원금 손실만 3분의 1토막이 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가에라도 매각해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는 게 낫다는 의견과 원금 회수에 실패해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성엘에스티는 최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스맥(주) 컨소시엄을 선정해 주식양수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계약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매각은 오성엘에스티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투자유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함께 산은 등 9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보유한 지분 46%(5707만6000주)에 대한 매각으로, 에스맥 컨소시엄은 채권단이 보유한 오성엘에스티 주식 5819만78주를 총 290억9503만9000원에 인수하게 된다. 이는 주당 500원이다.

문제는 매각가다.

채권단은 2014년 1월, 오성엘에스티의 제17회 및 제19회 전환사채에 대한 출자전환을 진행해 오성엘에스티 주식 2624만2664주를 총 393억6399만6000원에 인수했다. 주당 1500원이다.

결과적으로 채권단은 주당 1500원에 인수한 주식을 결국 500원, 3분의 1토막이 난 상태에서 매각한 것이다.

손실률은 67%에 달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기업 가치를 실사했을 때 해당 매각가가 적당한 것으로 봤다”면서 “인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이 매각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해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성엘에스티 매각은 앞서 한 차례 유찰된 바 있다.

하지만 시장 논리보다는 자회사 매각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산은의 입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산은은 장부가액 이상의 매각 원칙을 버리고 시장가치 매각이라는 원칙으로 선회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 자회사를 신속하게 팔라는 외부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구체적인 실적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성엘에스티는 산은이 대우조선 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판 출자기업이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마켓&마켓 ▶17~19
‘IB’ 판이 바뀐다


마켓 히어로 ▶21
에이치시티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데이터 뉴스 Data News

“美 금리 인상 전에 달러 사두자”

8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1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달러화 예금은 56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개인이 달러 투자에 나선 까닭이다. 개인의 외화예금도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8월 말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673억4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11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남주현 기자 jooh@





‘金·브라질’ 펀드 수익률 상위 포진

올해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펀드는 블랙록자산운용의 금 펀드로 나타났다. 13일 한국펀드평가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운용 순자산 50억 원 이상 펀드의 9일 기준 성과를 산출한 결과 블랙록자산운용의 금 펀드인 ‘블랙록월드골드’가 연초 대비 수익률 87.97%로 가장 좋았다. ‘IBK골드마이닝’과 ‘신한BNPP골드1’도 7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금 펀드의 성적이 대체로 좋았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금감원 "한진해운 화물보험 어렵다"

"적하보험 약관상 법정관리에 따른 지연 인도는 면책 대상에 해당"

해수부 대응책과 상반된 견해… 화주들 대규모 소송 돌입할 수도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상 운송 관련 보험인 적하보험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하보험이란 배로 운송하는 화물이 운송 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해상보험이다.

주로 수출기업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데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한진해운을 상대로 화주들의 대규모 소송이 우려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입항을 거부당해 해상에서 떠돌고 있는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에 실린 화물은 적하보험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다. 적하보험 약관상 이번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지연 인도는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는 대책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 대응 방향에 "화물 피해(냉동화물 손상 등)는 적하보험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수부의 발표 자료를 접한 금감원은 즉각 적하보험 약관을 따져봤고 그 결과 보상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해수부와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적하보험 약관은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에서 만든 내용이 반영된다. 통상적으로 해상 적하보험은 영국법을 적용받는데, 이는 국내 보험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험사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적하보험은 1982년을 기점으로 구약관과 신약관으로 나뉜다. 보험사와 화주는 구약관, 신약관 가운데 선택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는 구약관 제5조에 '지연 또는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도 확장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역자금 부족으로 인도가 지연되는 것 역시 보험처리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다.

신약관 제4.6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닌 면책약관에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불 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생긴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현재로선 법정관리, 하역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 민법 또는 상사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더 큰 상황인 셈이다.

다만, 배송이 지연된 화주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경우 런던중재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물류 사태'와 같은 사례가 극히 드문 만큼 약관상 해석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지희 기자 jhsseo@

결국… 4조 출연하고도 지키지 못한 AIIB 부총재직

분담금 4조3000억 지분율 5위…
부총재 내주고 국장급 한자리만
한국, 의사결정 영향력 줄어들어

현오석 전 부총리 자문위원으로
회계감사국장에 유재훈씨 선임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

중국 주도로 올 1월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한국 부총재직'이 결국 날아갔다.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AIIB는 중국이 주도해 아시아 인프라 시장을 관장하는 신설 국제금융기구로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다 어렵사리 참여했다. 정부는 AIIB가 총재·부총재 등 집행부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부총재직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4조원 이상의 출자금을 부담한 한국이 원래 배정됐던 부총재직을 잃고 그보다 급이 낮은 국장 자리를 얻는 데 그쳤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국장급 직위 공모 접수를 마감한 AIIB는 일부 보직 인사를 발표하면서 회계감사국장에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선임했다. 회계감사국장은 AIIB의 재정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 및 재무보고서 작성,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자리다.

기재부는 또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AIIB 지도부에 조언을 제공하는 비상임 자문단의 일원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문단은 비상근직이어서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다.

앞서 AIIB는 홍기택(64) 전 산업은행 회장(AIIB 위험관리 담당 부총재)이 대우조선해양 대출 개입 관련 폭로성 발언 이후 논란을 빚으며, 6월 말 휴직하자 홍 전 회장이 맡던 보직을 국장급으로 강등시키고 재무국장 직을 재무 담당 부총재로 승격시키는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홍 전 회장의 낙마로 공석이 된 부총재 자리는 프랑스 출신의 티에리 드 롱구에마 아시아개발은행(ADB) 전 부총재가 낙점됐다. AIIB는 15일께 드 롱구에마 부총재 신임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AIIB에서 중국·인도·러시아·독일에 이어 다섯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분담금이 37억 달러(약 4조1092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부총재 자리를 내주게 되면서 한국의 AIIB 내 위상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AIIB 의사결정에 한국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수주를 다툴 때 AIIB에 부총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당국은 홍 전 회장이 사실상 퇴출되고 후임도 한국인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한국 몫의 부총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사태 덮기에 급급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도 문제지만 전문성 없는 인물을 국제기구에 앉힌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의 큰 손실을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갤노트7 위기, 내가 해결" 직접 팔 걷어붙인 이재용

車부품·금융 등 신사업 인수합병·사업재편 속도

'실용'과 '혁신'. 지난 2년간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공백을 메우며 '뉴 삼성'을 차근차근 만들어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책임경영에 시동을 건다.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사업재편,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 그리고 최근 '갤럭시노트7'발(發) 신뢰경영 등 그간 이 부회장은 위기의 순간마다 과감한 결단을 내리며 실용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삼성을 구축해왔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와병 중인 이 회장을 대신해 사실상 삼성그룹을 이끌어온 이 부회장은 그동안 본인의 목소리를 드러낸 적이 없지만, 등기이사 선임을 통해 공식적으로 책임경영을 본격화한다. 이 부회장은 10월 27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그날부터 등기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2010년부터 COO(최고운영책임자)를 맡으며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2014년 5월 10일 이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이 부회장이 처음 경영 전면에 나섰을 때 당시 외신들은 삼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불안한 승계"라는 등 비평 일색이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폭넓은 대외행보와 이에 따른 사업적 결실이 하나 둘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문제가 생기면 현장으로 달려가 대화와 소통으로 최적의 답을 찾는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로 삼성은 애플과 MS(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업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비주력 사업은 정리한 반면 미래 신사업은 보강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 사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자 이 부회장은 삼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했다. 2014년 11월 방산·석유화학 계열사 4곳을 한화그룹에 매각했고, 이듬해 10월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삼성SDI의 케미칼사업 부문을 롯데그룹에 넘기며 조직을 슬림화했다.

동시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부품 계열사들은 자동차 전장사업을 신사업으로 삼고 전열을 재정비했다. '전자·바이오·금융'을 3대 축으로 잘할 수 있는 사업 중심의 체질 개선을 이뤄낸 것이다. 업계는 이 부회장이 향후 자동차 부품과 금융 등 신사업을 위한 인수합병(M&A)과 투자, 추가적 사업재편을 진두지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갤럭시노트7' 발화 이슈로 삼성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는 시점에 등기이사로서 책임경영 의지를 밝힌 점이 주목된다. 하반기 전략 신제품 출시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경영 참여를 공식화하며 대내외 불안을 잠재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는 1조 원 수준의 손실과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유무형의 피해가 예상되는 갤럭시노트7 사태를 이 부회장이 책임지고 풀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연말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 여부다. 삼성은 이번 등기이사 선임과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 연관성에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만큼 올 연말 대대적 조직개편과 인사쇄신 등이 점쳐지고 있다.

김지영 기자 gutjy@

이재용 부회장 경영 이후
삼성전자 최근 주요 M&A 및 전략적 투자

시기	기업	국적	사업내용
2014.08	스마트싱스	미국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발
8	콰이어트사이드	미국	공조전문 유통회사
9	프린터온	캐나다	모바일 클라우드 솔루션
2015.01	심프레스	브라질	브라질 최대 통합문서 출력관리 서비스 업체
2	루프페이	미국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
3	예스코일레그로닉스	미국	LED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6	빈리	미국	스마트카 부품
6	시그폭스	프랑스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기술
8	비캐리어스	미국	AI스타트업
2016.06	조이언트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6	애드기어	캐나다	디지털 광고 스타트업
8	데이코	미국	빌트인 가전 업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만원대 터치’ 시기가 문제일 뿐…“장기적 회복” 베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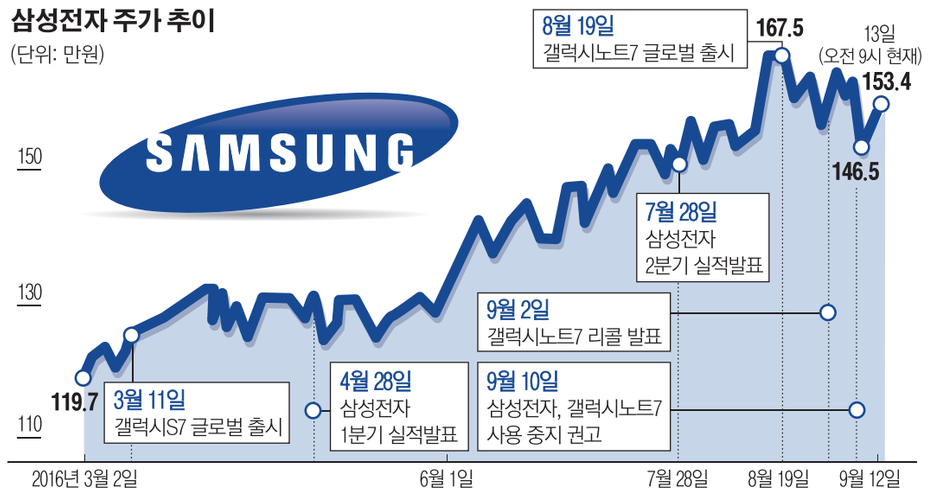
‘급락’ 하루만에 ‘상승’으로 방향 튼 삼성전자株

어제 6.98%↓…4년만에 최대 낙폭
오늘 150만원대 회복… ‘반전’ 스타트

당분간 약세 불가피해 보이지만…
오너 책임경영·지주사 전환 등 성장이슈
리콜 불확실성 털어낼땐 “개선” 전망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모니터에 보이는 삼성전자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11만원 하락한 146만5000원, 삼성SDI가 6000원 하락한 9만6500원, 삼성전기가 3900원 하락한 4만7700원을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전날 이재용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오너 책임경영’에 나선 것이 향후 사태 수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영 전면에 나서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향후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전략과 삼성그룹 전반의 지배구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하지만 주가하락의 원인이 된 리콜사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추세적인 회복을 점치지는 어려운 시점이다. 삼성전자가 급락한 것은 사그라지는 듯했던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가 지난 주말을 기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번 이슈는 전량 리콜 조치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10개국 정부와 삼성전자가 사용 중단을 권고하면서 다시 일파만파로 커지는 중이다.

일단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이번 리콜로 인한 손실규모를 8000억~1조5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세계 정부기관들이 갤럭시노트7 사용 중지를 권고해 리콜 발표 시점보다 상황이 더 복잡하고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쳐 연내 소비자 판매가 애초 추정치보다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리콜로 인한 삼성전자의 손실수준이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보기술·모바일(IM) 사업부의 산술적 피해 금액은 최대 1조 원이지만 판매되지 않은 정상 제품과 신흥시장 리퍼폰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3분기 피해액은 3000억~6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며 “전량 리콜 결정은 3분기 실적에 일시적인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소비자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리콜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주가하락의 원인인 만큼 리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사태가 일단락되면 주가도 적정선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김동원 현대증권 기업분석팀 부장은 “이번 사태가 하반기 실적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 성장 이슈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후 주가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실적 ‘적신호’…만회 카드는

‘가전’ ‘반도체’ 있잖아…3Q 영업익 7조대 전망

4분기는 갤노트7 판매재개 시점이 좌우

‘갤럭시노트7’ 전량 리콜(제품 회수) 조치로 삼성전자 실적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전분기 ‘갤럭시S7’ 서프라이즈로 2년여 만에 영업이익 8조 원대를 회복한 삼성전자는 올 3분기도 8조 원 수준의 실적이 기대됐지만, 예상치 못한 발화 이슈로 발목이 잡혔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 발화로 인한 전량 리콜로 스마트폰을 책임지는 삼성전자 IM(IT·모바일)부문의 산술적 피해금액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신속한 자발적 교체 프로그램 시행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교환 기간에 판매가 중단되기 때문에 실적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권업계가 예상한 3분기 IM부문 영업이익은 2조 원 후반에서 3조 원 초반 수준이다. 전분기 2년여 만에 영업이익 4조 원대를 회복한 IM부문은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S7의 지속적 판매 호조와 갤럭시노트7의 인기에 힘입어 3분기에도 4조 원대의 실적이 예상됐었다.

삼성전자는 돌발적인 발화 이슈로 IM부문의 실적이 기대치에 못미치겠지만, 반도체와 가전, 디스플레이가 실적을 뒷받침하며 3분기 7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둘 전망이다. 이번 발화 이슈로 전분기(8조1400억 원)에 이어 2분기 연속 8조 원대 영업이익 달성은 어려워졌지만 CE(소비자가전)부문과 DS(부품)부문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는 분석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모두 전분기(2조6000억 원, 1400억 원) 대비 크게 상승한 3조 원, 6000억~70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CE부문도 전망치보다 높은 7000억~8000억 원의 실적이 점쳐진다.

4분기 실적은 갤럭시노트7의 글로벌 판매 재개 시점에 달려 있다. 삼성전자가 완벽한 품질의 갤럭시노트7을 제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특히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팽배한 미국에서 차질 없는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새 배터리를 탑재한 갤럭시노트7 생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교환 제품 물량을 맞추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다. 여기에 배터리 공급구조가 삼성SDI와 중국 ATL 멀티밴더에서 ATL에 전량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배터리 공급 차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지영 기자 gutjy@

삼성SDI는 겹악재에 ‘전전긍긍’

中전기차 인증 탈락·배터리 리콜 ‘당분간은…’

배터리 中ATL 대체…정상공급까진 2달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의 여진이 지속되며 배터리를 공급한 삼성SDI 실적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사업도 난항을 겪으며 당분간 이중고(二重苦)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반적인 악재로 일부에서 ‘책임론’과 함께 벌써 연말 인사설도 거론되고 있어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하다.

13일 전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발화 논란을 일으킨 배터리는 삼성SDI에서 공급받은 제품이다. 삼성SDI는 현재 배터리 발화의 근본 원인을 찾고 있는 중으로, 10월 중순경이면 어느정도 밝혀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를 삼성SDI에서 70%, 중국 ATL에서 30% 공급받았지만, 결함 발견 이후 삼성SDI로부터의 수급을 중단했다. 대신 ATL 수급 물량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작업이 끝나더라도 문제점 개선과 품질테스트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배터리 공급까지는 적어도 1~2개월의 시간이 걸려, 삼성SDI는 당분간 갤럭시노트7의 물량을 지원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고로 삼성SDI의 핵심 사업인 소형전지 부문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삼성SDI의 매출 40%는 소형전지 부문에서 나오고, 이 소형 전지 사업 매출의 40%는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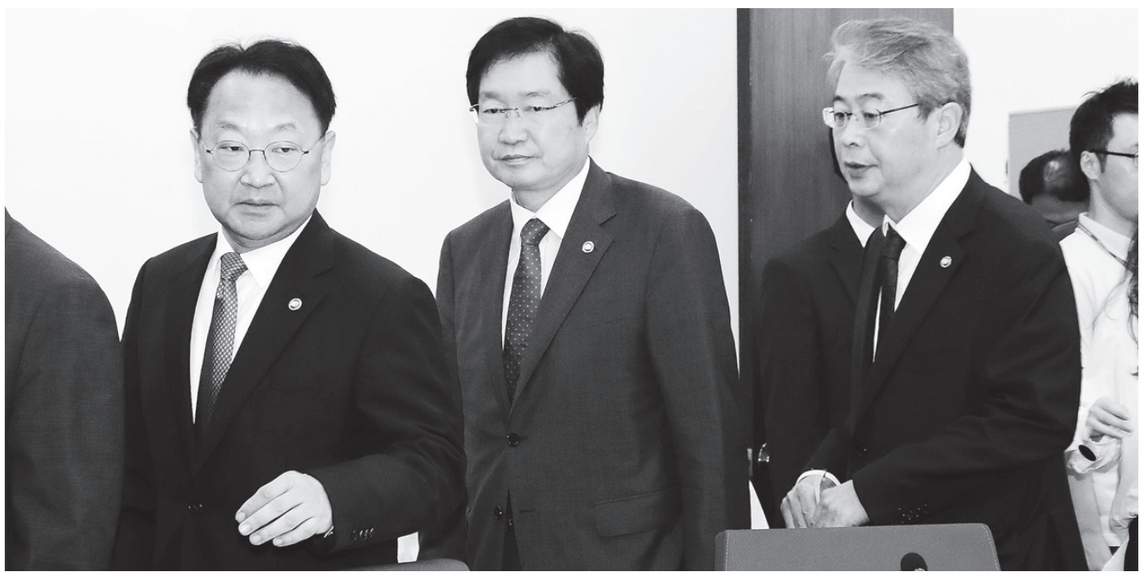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삼성SDI는 글로벌 소형전지 판매 1위라는 명성과 배터리제품에 대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중대형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도 지난 6월 중국 전기차 배터리 모범 기준 인증에 탈락한 바 있어, 이번 사태가 엎친 데 덥친 격이 됐다. 지난 8월로 예상됐던 중국의 추가 인증 심사도 미뤄지고 있는데다, 사드배치 이슈까지 터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져 삼성SDI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삼성SDI의 2016년 3분기 매출액이 2분기 대비 4.5% 증가한 1조 3759억원이지만, 영업적자는 391억원으로 예상보다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원전 수동 정지… 공장 가동 일시중단

'경주 5.8 강진' 전국 흔들
구미산단 삼성·LG 공장 멈춰
삼성 화성공장 장비에도 감지
현대차 울산공장 긴급 점검
건물 벽면 금가고 유리창 파손
월성·한울등 원전 안전 이상無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한진관련 물류대책 및 지진관련 국민안전 종합점검 당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경북 경주서 잇따라 발생한 사상 최강의 지진에 전국이 흔들렸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에 원자력발전소가 수동 정지했고, 삼성과 LG 등 일부 공장에서 생산라인이 일시 중단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이날 저녁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연거푸 발생하자 겁에 질린 일부 시민들은 머물던 아파트나 고층건물에서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다. 일부 주택과 상가의 벽면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파손됐다는 신고도 잇따랐다.

산업계에도 지진 여파가 일부 미쳤다. 구미 산단 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장과 LG디스플레이의 LCD(액정표시장치) 공장이 지진으로 일부 생산라인이 정지됐다. 삼성전자는 1차 지진 후 예방 차원에서 금형정밀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금형정밀 생산라인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만, 정밀한 작업이 요구됨에 따라 삼성전자 측은 예방 차원에서 라인가동을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화성 공장의 포토장비 3대도 이날 지진으로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설비에 지진의 진동이 감지되긴 했지만, 생산에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상태다.

구미 산단 내 LG디스플레이도 지진 발생의 LCD 패널의 자동 이동라인이 잠시 멈춰 섰다.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에서는 1~6세대 LCD 패널을 생산하고 있으며, 6세대 제품의 크기는 1500×1850㎜에 달한다. LCD 패널이 크고 얇아서 지진 발생 시 깨질 수 있어 자동 이동시스템이 저절로 멈춰 선 것이다. 순간적인 정지로 생산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다.

현대자동차도 13일 오전 울산 공장 생산라인을 일시 멈추고 점검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안전 점검을 위해 평소 오전 6시 45분터 가동하던 생산라인을 중단하고, 오전 9시부터 정상 가동했다.

규모 5 이상의 지진에 원전도 안전 점검을 위해 멈춰 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이 발생하자 절차에 따라 월성원전 1~4호기를 수동으로 멈췄다.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안전 점검을 목적으로 수동 정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수원은 월성, 한울, 고리, 한빛 4개 원전본부와 수력, 양수발전설비를 전체 점검한 결과 시설 안전에는 이상 없이 정상운전 상태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설계기준 지진 값인 0.2g보다 작으나, 자체 절차에 따라 정지기준인 0.1g을 초과한 월성 1~4호기에 추가로 정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수동으로 정지했다.

카카오톡도 12일 오후 7시 45분부터 9시 52분까지 2시간 이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를 겪었다. 이용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카카오톡 장애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카카오 측은 점검 결과 지진 발생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안부메시지를 보내면서 트래픽이 과도하게 증가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트래픽이 평소보다 4배가량 치솟으며 메시지 전송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진으로 열차들이 정차 후 시속 서행하면서 경부선 하행선 열차 운행이 최고 3시간 3분까지 지연됐다. 현재는 점검을 한 뒤 선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13일 첫 차부터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55세 '고령자' 명칭 '장년'으로

대기업,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령자 명칭 변경 ※ 출처: 고용노동부

연령	15~29(34)	30(35)~49	50~54	55~
현행	청년	규정없음	준고령자	고령자
개정안		규정없음		장년

현재 55세 이상으로 규정된 고령자 명칭이 사라지고 '장년'으로 변경된다. 또 대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경력진단에서 취업알선까지 재취업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준고령자'와 55세 이상의 '고령자' 명칭이 장년(55세 이상)으로 바뀐다. 정부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어 고령자의 고용 안정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55세 이상을 모두 장년으로 통칭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생활비 등이 필요해 평균 71세까지 일하고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열악한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 사업주가 장년층이 퇴직 이후를 미리 준비하도록 재직단계에서 경력을 진단하고, 진로 상담을 해주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 대한 퇴직 예정 근로자 역량 강화 지원도 의무화된다. 산업계의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경력진단, 재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교육, 취업알선까지 패키지로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을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통합·운영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 동의 없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 변경만으로도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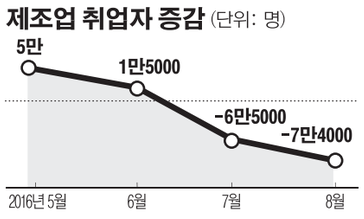
지난달 취업자수 38만명, 제조업은 감소

울산·경남 실업률 급증

시도별 고용률과 실업률 (전년동월차)

고용률		실업률	
전국	0.3p	전국	0.2p
경남	-0.1p	경남	1.6p
울산	-0.5p	울산	1.2p

제조업 취업자 증감 (단위: 명)



8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8만 7000명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30만 명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는 두 달 연속 감소했고 울산과 경남의 실업률이 급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6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8만7000명이 증가했다. 전월(29만 8000명)에 비해 크게 늘었고 6월(35만 4000명) 이후 다시 30만 명대 증가세로 회복했다.

통계청은 "제조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감소세가 확대됐으나, 농림어업의 감소폭 완화, 건설업의 증가폭 확대, 도매 및 소매업의 증가 전환 등으로 취업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OECD기준 고용률은 66.4%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3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사실상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은 10.2%로 전월(10.7%)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석 달 만에 증가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9.3%로 전월(9.2%)보다 증가했다.

취업자가 전월보다 증가했지만,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7만 4000명)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7월에 6만5000명 감소하면서 49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8월에는 감소폭이 더 커졌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역인 울산과 경남의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1.6포인트 각각 급증했다. 곽도흔 기자 sogood@

비상장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통한 회사 인수 쉬워진다

1인당 주식 취득 한도 폐지
차입 한도·기간 요건도 풀어

우리사주조합 결성현황
※ 기타법인: 국세청 '2014년 국세통계연보'의 2013년 12월말 현재 주식회사 수에서 상장 및 코스닥 법인수를 차감해 산정

	대상법인	결성조합	결성률(%)
코스피	795	664	83.5
코스닥	967	825	85.3
기타(비상장)	548,710	1,343	0.2
계	550,472	2,832	0.5

우리사주 취득재원별 비중
단위: %(주식수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코스피	코스닥	기타(비상장)	전체
조합원 출연	88.9	76.2	76.6	85.4
회사, 대주주 출연	9.3	15.5	12.5	10.5
조합차입, 제권리	1.8	8.3	10.9	4.1
계	100.0	100.0	100.0	100.0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쉬워지게 된다. 우리사주는 직원들의 재산 형성과 협력적인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해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경영난으로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1인당 주식취득 한도가 없어진다. 현재는 근로자 1인당 발행주식 총액의 1%(중소기업은 3%) 또는 액면가 합계 3억 원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사주 취득한도가 폐지되면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총 주식의 30%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현재 전년도 조합원 급여총액 이내로 묶여 있는 차입 한도와 3~7년로 제한돼 있는 차입기간 요건도 폐지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이 어려울 때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들이 기업 인수를 하게 되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회사의 지속적인 경영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비상장법인 조합원이 회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를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도 의무화된다. 이는 비상장법인은 주식거래가 어려워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률은 0.2%에 불과하다.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환매수)할 수 있게 되면 비상장법인 주식의 환금성이 높아져 우리사주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회사의 무상출연 확대를 위해 회사가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위해선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증권금융 전문가가 우리사주제도 도입 관련 교육·홍보자문, 우리사주조합 업무 대행, 매매관련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에 부과

오늘의 법안

새누리 심재철 의원 발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차량가액대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수입차 등 고가의 차량은 세금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산차의 세금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심재철<사진> 의원은 12일 자동차세를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BMW 520d(1995cc)의 경우 쏘나타(1999cc)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다. 6000만 원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 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 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기량 대신 차량 가액대로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차량가액 1500만 원 이하는 차량가액의 0.8%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12만 원+(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자동차가액 3000만 원 초과 시에는 33만 원+(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한 해 7조' 상품권… 지하경제 유입 우려

추적 불가… "관련법 만들어야"

상품권이 연평균 7조 원 규모로 발행되고 있지만 '누가 구매하고 어떻게 쓰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지하경제 유입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상품권은 관리·감독의 근거가 없어 향후 더욱 음성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품권은 총 34조6153억 원이 발행됐다. 연평균 약 7조 원의 상품권이 발행된 셈이다. 작년 한 해만 8조355억 원에 이른다. 이 중 10만 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366억 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연평균 약 10조 원으로, 상품권 발행량이 화폐 발행량의 약 70%에 달하지만, 상품권은 한국은행의 통화량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문제는 지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과거 상품권법에서 규정하던 상품권의 발행자의 인허가, 발행, 상환, 미상환 등의 보고·검사가 사라져 시중에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소관부처도 없어 기초적인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박엘리 기자 ellee@

한진해운 투자한 농·축협, 투자금 회수 불투명

96개 조합 1085억 투자

96개 농·축협 조합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에 108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투자금은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이며,이로 인해 일부 조합은 자산건전성이 악화돼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245개 조합 중 96개 조합이 한진해운에 투자했으며 금액은 총 10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총 74개 조합 중 25개 지점이 투자했으며 금액은 약 2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남지역이 총 26개 조합 중 15곳이 약 160억 원을 한진해운에 투자했다.

투자 조합수 대비 투자액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서울지역 농·축협 한 곳당 29억 원, 부산 약 23억 원, 경기 약 21억 원 순으로 투자 조합수는 적지만 지점별 투자액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전국 245개 농·축협 조합 중 약 40%가 투자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총 1085억 원이나 되는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곽도흔 기자 sogood@

김영란법이 내린 음식값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음식점들이 살길을 찾고 있다. 12일 서울 강동구 한 횟집에 '김영란법' 영향으로 음식값을 내린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거나 5만원이 넘는 선물,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울한 추석…체불임금 연말엔 1.4조

8월말 21만4052명 9471억, 1인 평균 442만원

경북지역 634만원으로 최고…제조업·건설업 순

올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1조 40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선업과 제조업 등의 불황 여파라는 분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8월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21만4052명, 금액으로는 94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로 미루어 보면 연말에는 체불임금이 1조4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42만 원으로 지난해 439만 원 대비 0.69% 증가한 정도에 그쳤지만, 각 지역별로 구분해 분석하면 체불임금 규모의 증감현상과 관련해 뚜렷한 지역적 특수성이 확인된다.

가장 많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역은 경상북도로 1인당 평균 634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서울(483만 원)과 충청남도(476만 원), 경상남도(463만 원) 순이었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경북은 1인당 체불금액이 212.3%, 울산은 133.9% 각각 급증해 최근 불거진 조선업 구조조정 등 지역 제조업종의 불황이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만37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7만53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6만3528명)이 뒤를 이었다.

월 평균 체불임금도 2012년 980억 원, 2013년 994억 원, 2014년 1099억 원, 2015년 1082억 원, 올해 8월 1183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송 의원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재구축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 결과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중 기자 zerg@

홍콩과 조세조약, 미국과 금융정보 교환협정 비준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홍콩 조세조약과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이하 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국은 하루 뒤인 8일 즉시 조약이 발효됐으며 홍콩은 오는 27일 발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과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와의 금융정보 교환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 국가를 통한 역외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번 두 조약이 발효하면서 스위스와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역외탈세가 빈번히 일어나는 국가들 가운데 스위스, 싱가포르와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조세조약을 개정했지만 홍콩을 상대로는 관련 정보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홍콩과의 조세조약이 발효하면서 홍콩 소재 계좌정보와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FATCA를 통해 미국에서 계좌정보와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2014년과 2015년 2년치 금융정보 교환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회사 분할 전 담합 과징금은 분할회사서 내야"

엘지화학, 엘지하우시스 상대 소송…대법 최종 승소판결

엘지화학이 2009년 분리된 엘지하우시스를 상대로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가격 담합을 이유로 엘지화학에 66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엘지화학이 엘지하우시스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 직후 엘지하우시스는 과징금 전액을 엘지화학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공정위는 엘지화학이 엘지하우시스와 분할되기 전인 2008년에 일반 실크벽지 등의 특판가를 다른 업체들과 공동 인상하는 등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엘지화학은 2009년 엘지하우시스를 분리하면서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분할계획서를 승인받았는데, 회사에 대한 채무가 분할 대상 사업일 경우 엘지하우시스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엘지화학은 일단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뒤 벽지 담합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엘지하우시스가 내는 게 맞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좌영길 기자 jyg97@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뉴스컴 대표 기소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명목으로 20억 원대 일감을 얻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환(58)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12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박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박 대표의 예금과 부동산 등 2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민유성(62) 전 산업은행 장에게 남 전 사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해준 대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우조선으로부터 21억 3400만 원 상당의 부당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업은행과의 마찰, 자회사 관리 미흡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던 남 전 사장은 박 대표에게 연임로비를 부탁하며 성공 시에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임이 확정되자 박 대표는 20억 원을 요구했고, 남 전 사장과 특혜성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또 2009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호그룹으로부터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사실상 금호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호 임원에게 3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착수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우선 받았으나 로비 실패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30년 지기' 검사장과 기업인의 '9억' 돈거래



진경준 "뇌물 아닌 호의와 배려"



김정주는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왼쪽사진**)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9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호의와 배려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2일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48·**오른쪽**) NXC(넥슨) 대표, 서용원(67) 한진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진 전 검사장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김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은 것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 변호인은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인생의 벗으로 우정을 나눠왔다"면서 "(주식 취득은) 둘의 밀접한 관계에 따른 호의와 배려의 과정"이라고 했다.

진 전 검사장 측은 법리적으로도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 전 검사장이 처음 넥슨 주식을 사들인 시기는 2005년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2006년 넥슨 주식을 매각한 뒤 넥슨 재팬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지난해 되팔아 120억 원대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하나의 범죄, 즉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은 검사의 지위에 따른 장래 보장성 성격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김 대표가 2005년부터 장래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금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항상 같은 목적이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김 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 측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끝내고 27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고 주된 범죄 사실인 넥슨 공짜 주식을 주고받은 혐의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김 대표에게 취재진이 "호의로 제공한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했으나 그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우리은행 지분 인수전…진성매수 이어질까

한화생명·국민연금·교보생명 등 참여 검토에 흥행 기대
포스코 인수의사 철회… 실제 입찰 얼마나 될지 의문도
"6~8곳의 과점주주 나서야 민영화 성공한다" 분석 무게
"은산분리 완화해 산업자본에 금융사 인수 길 열어줘야"

우리은행의 과점주주가 될 잠재투자자에 대한 투자의향서(LOI) 접수 기간이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우리은행 지분 인수전도 불붙고 있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국민연금, 한국투자금융 등 기관 투자자 여러 곳이 후보자 물망에 오르며 흥행 성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주거래 기업인 포스코가 인수 의사를 철회하면서 실제 입찰로 이어지는 진성 매수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을 갖는 시각도 적지 않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섯 번째 시도되는 우리은행 민영화의 매각 주간사인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삼성증권, JP모건은 지난달 22일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매각 발표 이후 투자의향서 접수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현재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은 수요조사 때 리스트에 포함된 국내 잠재투자자들에게 입찰 신청을 요청했으며, 금융당국의 수요조사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의중'을 일일이 확인하는 창구였던 JP모건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하는 매각 주간사이다.

지난주 5일부터 투자의향서 접수가 사실상 개시돼 마감 날인 이달 23일까지 LOI 접수를 받는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접수 마감까지 일주일 남았다.

일찌감치 우리은행 과점주주로 거론되는 한화생명은 우리은행 지분 분할 매각에 관한 투자의향서 제출 마감시한 전날인 22일 이사회에서 우리은행 지분 매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방카슈랑스(은행 지점의 보험 판매) 등 은행과 보험업 간 시너지 확대 차원에서 우리은행 지분 4%를 매입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위기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연기금을 동원해 금융시장 충격을 흡수해온 국민연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1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지분 인수 참여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4차 우리은행 민영화 때 경영권 인수를 심각하게 고민하다 막판에 포기한


우리은행 명동 본점 전경.

교보생명도 과점주주로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투자금융도 기존 한국투자증권 중심의 그룹 구조를 은행까지 확대해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에서 우리은행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현실적인 니즈가 있어 보이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6~8곳의 과점주주가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LOI를 접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부적격자는 탈락시키는 '쇼트리스트' 작성 작업을 거쳐 투자자들이 한 달여간 사업성을 따져보는 시간을 가진 뒤 11월 중 입찰을 마감하고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만 실제 입찰까지 이어질 진성 매수자 확보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인수 후보자로 거명되는 기관 투자자들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던 우리은행의 주거래 기업인 포스코가 매수 의사를 최종 철회하면서 이런 시각이 적지 않다. 연말 출범할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를 주도하는 KT 역시 은행업 진출을 위해 우리은행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에서 유력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나 확실하지 않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산업자본은 금융회사 지분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를 완화해 산업자본에도 금융사를 인수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우리은행을 인수할 만한 여력을 갖춘 국내 자본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우리은행 민영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궁극적인 해법이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들도 우리은행 지분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칼라일, 어피너티, 베어링PEA 등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안방보험도 꼽히고 있다.

하지만 해외 자본에 우리은행 지분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박일경 기자 ikpark@

수출입은행, 이주여성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13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에 총 2억2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수은의 후원금 중 1억2000만 원은 이주여성 중점고용과 공정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마을무지개 등 사회적기업 5개사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억 원은 결혼이주여성과 중도입국청소년 등 20명의 일자리 급여 및 인력훈련비 등으로 사용된다. 이덕훈 수은 행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앞줄 왼쪽 네 번째)를 만나 후원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수출입은행

생보사 해외투자 '양날의 검'… 농협·ING·미래에셋 신용위험액 급등

수익률 높이려 위험성 투자 늘려
3개사 신용위험액 1년새 30%↑
지급여력 낮아지며 건전성 훼손

보험사들이 낮은 자산운용수익률에서 탈피하기 위해 해외유가증권, 대출채권 등 위험성 투자를 늘리면서 신용위험액이 급등하고 있다. 신용위험액 상승은 요구자본을 늘려 재무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상위 6개사 가운데 NH농협생명,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3개사는 신용위험액이 1년 새 30% 이상 급등했다.

신용위험액은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액수화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해외유가증권이나 신용대출 등에는 더 높은 위험계수가 곱해지는 만큼, 신용위험액은 더 증가하게 된다.

ING생명의 신용위험액은 1427억 원(지난해 6월)에서 1975억 원(올해 6월)으로 1년 새 38.35% 증가했다. 이는 6개사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미래에셋생명(32.85%), 농협생명(30.57%)이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대형 3사는 삼성생명(15.2%), 한화생명(9.68%), 교보생명(17.8%) 등으로 증가폭이 낮았다.

ING생명 등 3개사의 신용위험액 상당수는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이 차지했다. ING생명은 총 신용위험액 가운데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위험액을 합친 금액이 82%를 차지했다. 농협생명은 92.8%, 미래에셋생명은 94.5%를 차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주 성격이나 담보 여부, 투자 기간 등에 따라 신용위험액 정도가 달라진다"며 "일반적으로 이들 보험사들이 국공채 규모를 줄이고 위험성 있는 회사채나 해외유가증권 투자를 늘리다 보니 신용위험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리스크 신뢰 수준이 99%로 상향 조정된 것도 신용위험액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신용위험액 증가가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신용위험액 상승은 보험사의 제반 위험도를 반영한 요구자본을 증가시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가용자본/요구자본)을 낮추기 때문이다.

요구자본은 신용위험액을 포함,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등 5가지 수치를 반영해 산정된다.

박규준 기자 abc84@

강진에 카드사 데이터서버 긴급점검

데이터 센터 대부분 수도권 위치 "이상 없어"
국내 지진보험 없어… 화재보험 특약 가입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사상 최대 강도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험사들은 관련 보험 문의 급증에 대비하고, 카드사들은 서비스 불통을 대비하는 비상체계를 가동하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선 전날 지진 이후 관련 보험 문의에 대비하고 있다.

보험권 관계자들은 국내 보험시장에서 '지진보험'이라는 명칭의 상품이 없는 만큼 화재보험 특약을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이나 민간보험인 화재보험에서 특약 등의 형태로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기준 지진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계약 건수와 보험료는 각각 1만2036건, 115억6000만 원에 불과하다.

화재보험 특약으로 제공하는 지진담보 특약도 2014년 기준 계약 건수와 보험료가 각각 2187건과 8400만 원으로 화재보험 전체 가입자 중 0.14%만이 해당 특약에 가입했다. 특약 등의 형태로 지진 피해에서 보상이 열려 있지만 일부만이 이용하는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터키·일본 등은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 가주지진공사(CEA)는 민간보험사에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지진 리스크를 주정부가 모두 인수하는 형태로 지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지진보험 가입현황은 2013년 보험료 규모 기준으로 약 16억 달러에 달한다.

카드업계는 지진 발생 소식 직후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을 긴급 점검하며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카드사들은 주로 수도권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이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수원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수도권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떨림이 감지됐지만 데이터 센터는 이상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도 죽전 본센터와 일산 백업센터 상황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점검하는 등 이상 상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특이점은 보고되지 않았다.

현대카드는 경기도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점검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BC카드는 서울의 메인 센터에서 이상이 보고되지 않은 만큼 문제가 없었으며, 경기도에 백업 센터도 운영 중이다.

김우람 기자 hura@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금융개혁
국민의 재산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희망찬
한가위 보내세요

온 가족과 함께 웃음꽃이 피어나는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아이오아이(I.O.I)_유정

아이오아이(I.O.I)_도연

KB국민은행

"오너家 지배력 강화" 분주한 CJ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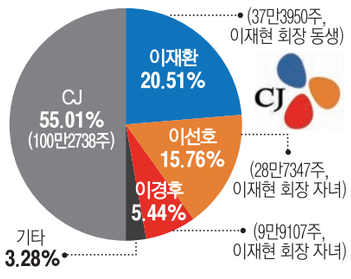
CJ올리브네트웍스, 11월 말 파워캐스트 자회사 편입
'4세 승계' 지렛대 역할 기대·일감 몰아주기 논란 불식
임원승진 인사 통해 사업재정비 등 경영정상화 속도

CJ그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이재현 회장의 경영 복귀를 앞두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밀린 투자와 인사, 계열사별 합병을 단행하는 등 이 회장 경영 복귀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13일 CJ그룹에 따르면 우선 경영 전반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 오너일가 승계 작업의 지렛대 역할을 할 핵심 계열사 CJ올리브네트웍스로 지분 역량을 모으고 있다. 유선·위성 등 방송업체인 CJ파워캐스트는 10월 말 CJ CGV 스크린 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하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흡수 합병할 예정이다. 두 회사의 합병 작업이 마무리되면, 11월 말에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지분 교환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한다. 모든 거래가 완료되면 사실상 '재산커뮤니케이션즈-CJ파워캐스트-CJ올리브네트웍스' 3개 회사가 합쳐지는 셈이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합병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고, 동시에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계획대로 합병 및 주식교환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CJ올리브네트웍스 오너가 지분율은 22%에서 44%로 두 배가량 늘어나 승계 지렛대로 평가받고 있는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한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파워캐스트 지분교환 후 통합 CJ올리브네트웍스 예상 지분율



인사도 단행했다. CJ그룹은 12일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를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그룹 내 임원 50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김 부회장은 그룹 내 오너가를 제외한 첫 부회장이다. 특히 경쟁사인 대상이 첫 직장인 데다 그룹 비공채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독 눈길을 끌고 있다.

재계는 지난 3년간 승진 인사가 지연돼 임원들의 사기 저하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었던 만큼, 이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한 첫 행보로 승진 정체를 해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부회장의 승진을 통해 공격적 경영기조를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번 승진 인사는 사업을 재정비하고 계열사별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계열사별로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최근 매출 800억 원대의 말레이시아 종합물류기업인 센추리 로지스틱스 지분 31.4%를 사들여 1대 주주로 올라섰다. CJ제일제당도 미국 바이오벤처기업 메타볼릭스(Metabolix)의 생명공학 관련 연구시설과 설비, 지적재산권 등 자산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선애 기자 lsa@

최은영 前회장 100억 지원한다지만 아직 갈길 먼 한진해운



청문회 질타 사흘 만에 유수홀딩스 주식 담보 금융권 차입키로
해외 화물 하역에만 1700억 필요… 물류대란 잠재우기 '역부족'

최은영〈사진〉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2일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해 개인 재산 100억 원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9일 최 회장이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타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내린 결정이다. 100억 원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해 확보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2006년 남편인 고(故) 조수호 회장이 별세한 후 2007년 경영권을 승계했으나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 선복량 증가 및 고유가로 인한 해운 경기의 장기간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4년 5월 한진해운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최 회장은 회사를 넘길 당시 연봉과 퇴직금 97억 원을, 2007부터 2014년까지 한진해운에서 근무하면서 총 254억 원의 보수 및 배당금 등을 받아갔다.

이처럼 한진해운 경영에 실패한 전 경영자가 엄청난 보수를 챙기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청문회 증인 출석 이후 사재 출연을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양호 현 회장과 함께 전·현직 회장이 모두 사재(총 500억 원)를 출연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물류대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미국에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신청을 승인하면서 롱비치 항구 인근에 대기 중인 5척의 선박이 화물을 내리고 있지만, 이들을 실어나를 철도 회사들은 한진해운 화물 수송을 거부한 상태다. 또 미국 외에 다른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70여 척의 선박에 실린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 박스들도 문제다. 이들 선박에서 짐을 모두 내리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조 회장의 사재 400억 원은 13일 집행될 예정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이재용式 실용주의… 삼성전자, 美HP에 프린터사업 매각

프린팅솔루션 1조1544억 양도
올 11월 자회사 분할 후 마무리
비주력 사업 정리 '선택과 집중'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HP에 프린팅솔루션사업부를 매각한다. 프린터 사업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든 만큼 과감히 정리하고, 1위 사업에 집중하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실용주의 철학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12일 프린팅솔루션 사업부의 자산, 부채, 기타 관련 권리·의무 등을 포함해 사업부문 일체를 HPI(HP에서 PC와 프린터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기본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양도금액은 1조1544억 7500만 원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11월 1일 자로 프린팅 사업부를 100% 자회사로 분할한 뒤, 지분과 해외자산 등 사업부문 일체를 HPI에 양도해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프린터 사업 매각 후에도 삼성전자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 대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건은 협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프린터 사업은 1984년 HP와 합작해 자본금 81억 원 규모로 '삼성휴렛패커드'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삼성전자는 자사가 보유한 삼성휴렛팩커드 지분(45%)을 모두 HP에 넘겼지만, 2000년대 이후에도 레이저 프린터를 중심으로 자체 사업을 강화해왔다. 이번 매각도 과거의 협력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프린터사업부는 국내 수원사업장과 중국 생산거점, 해외 50여 개의 판매거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국내외를 합쳐 6000여 명 규모다. 올해 초 음성인식·프린팅서비스 전문기업인 미국의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즈와 협업해 B2B 프린팅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으며, 지난해에는 프린팅솔루션 업체인 심프레스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TV와 가전 등을 담당하는 CE(생활가전)부문 산하에 있는 프린팅솔루션사업부가 CE부문에서 차지하는 매출은 10% 수준에 머문다. 또한 기업 간 거래(B2B) 성격이 강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 내부적으로는 향후 사업전략과 관련된 고민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주문에 따라 저성장 시대에 대비,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주력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삼성SDS는 최근 물류 사업 부문 분사를 검토하며 체질개선에 나섰고, 지난해 11월에는 삼성SDI 케미칼 사업부문과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을 롯데케미칼에 매각했다. 지난 2014년 11월 방위산업과 석유화학 계열사 4곳을 한화에 매각하기도 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삼성 바이오시밀러 북미 첫 진출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 복제약 '브렌시스' 캐나다 판매 허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달 31일 캐나다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에타너셉트 바이오시밀러인 '브렌시스(SB4)'에 대한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브렌시스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매출 기준으로 약 10조 원 팔린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다. 캐나다에서는 류머티즘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치료제로 머크 캐나다를 통해 판매될 전망이다. 브렌시스는 지난해 9월 국내 식약처의 제품 판매 허가를 시작으로 올해 1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7월 호주 의약품 규제기관(TGA)에 이어 북미 지역에서는 캐나다에서 첫 판매 허가를 받았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한국, 유럽, 호주에 이어 이번 캐나다에서 브렌시스 판매 허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보다 많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브렌시스와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 10개 국가, 70여 개의 병원에서 596명의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다. 52주 차 ACR20 반응률에서 브렌시스 투여군은 80.8%, 오리지널 제품 투여군은 81.5%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 52주 차에 스위칭해 100주까지 평가한 스위칭 임상 시험 결과는 제품을 스위칭한 이후에도 유효성, 안전성 및 면역원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리는 자가면역 치료제 'anti-TNFα' 제품은 '아달리무맙', '인플릭시맙' 그리고 '에타너셉트'로 이들 3종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약 35조 원에 달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 중 올해 이미 2종의 바이오시밀러를 국내와 유럽에서 판매 중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한가위 전통시장 방문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역곡상상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주 청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참기름, 들기름, 과일, 쌀, 김, 건어물 등 추석 성수품을 구입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다. 주 청장이 역곡상상시장에서 떡과 약과 등을 구입하면서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청

'보안 10계명' 지키고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인터넷진흥원, 사이버 안전 수칙
스마트폰 최신 OS 업데이트하고
백신 및 스미싱 차단앱 설치 권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용자의 정보 탈취를 노리는 악성코드와 보이스피싱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안업계에서는 보안 수칙을 철저 준수, 정보 유출을 통한 금융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 기간 사이버 안전을 위한 '보안 10계명'을 발표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으로 추석 때 물량이 많아지는 택배 송장의 경우 반드시 분리 폐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스마트폰과 PC의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백신과 스미싱을 차단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자나 이메일에 포함된 의심스러운 이메일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공공장소에서는 불분명한 와이파이(Wi-Fi)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스트소프트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상에 흥행 영화 파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이 P2P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악성파일은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추석 명절에 각종 영화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를 겨냥해 유포되고 있다. 해커들은 허위 동영상 파일과 함께 '재생이 안 될 경우'라는 파일도 동시에 유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준섭 이스트소프트 본부장은 "명절 연휴 동안 휴식을 위해 영화나 드라마 등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악성코드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VOD(주문형비디오) 구매 등 정식 경로를 통해 저작물을 즐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위해성 낮다" 가슴 쓸어내린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파문 정부 최종 결과에 주가 오름세로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파문으로 사면초가에 몰렸던 코웨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의 얼음정수기 3종이 '위해성이 낮다'는 정부의 최종 평가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의 니켈 검출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제품결함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위해성 수준이었다. 코웨이는 당초 니켈 검출로 미치는 위해성이 극히 낮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코웨이의 1010개 제품 대상 수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단기·장기·평생 얼음정수기를 통해 니켈을 섭취할 경우 위해성을 각각 평가했다.

그 결과 2년 미만인 실제 사용기간,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수거된 점을 고려하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어린이 기준으로 7년 음용 시 미국환경청(US EPA)의 권고치(0.5mg/ℓ)에 해당했다. 이는 니켈 검출 논란이 처음 불거질 당시 코웨이가 내세웠던 위해성 수준과 대동소이한 결과다.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12일 코웨이의 주가는 오름세로 전환했다. 전일 대비 6.53% 상승한 9만13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정부가 발표한 위해성 수준이 코웨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장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과의 집단소송에서도 코웨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소비자들은 인체 유해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위해성이 낮다는 정부 조사 결과는 소송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코웨이 측은 철저하게 표정관리에 나서고 있다.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에서 '위해성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면 오히려 '반(反) 코웨이'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 조사에서 위해 우려는 낮다고 확인됐지만, 고객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은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혹시나 우려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용 콜센터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2016 게임대상 왕좌는 누구?



넥슨 'HIT'·넷마블 '이데아'·4:33 '로스트킹덤'…

올해도 모바일 게임 '찜'

11월 부산 벡스코 '지스타 2016' 전날 열려
온라인게임 수준 그래픽으로 기대감 높아
넥슨 '서든어택2' 등 온라인게임은 흥행참패
넥스트플로어 '프렌즈런' 초반 흥행 주목

2016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을 빛낸 최고의 게임을 꼽는 시상식에서 어떤 작품이 선정될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오는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지스타 2016' 개막식 하루 전날 열릴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수상 분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총 14개 부문 20개 분야에 걸쳐 시상이 진행된 만큼 올해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열린 2015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는 넷마블게임즈의 '레이븐'이 대상을 수상했다. 네시삼십삼분의 '블레이드'에 이어 2년 연속 모바일게임 수상이다. 업계에서는 올해도 모바일게임이 대상을 수상,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게임대상 수상작들은 온라인 게임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게임 생태계가 모바일 위주로 빠르게 바뀌면서 그 명맥이 끊겼다. 올해도 다양한 온라인게임이 출시됐지만, 이렇다 할 흥행 성적을 내지 못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최대 기대작으로 꼽혔던 넥슨의 '서든어택2'는 출시 3달 만인 29일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흥행 참패를 맛봤다. 또다른 기대작이었던 네오위즈게임즈의 '블레스'는 북미·유럽·일본·러시아 등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지만, 국내에서의 영향력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때문에 모바일게임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2년 연속 모바일 RPG 장르가 대상을 수상한 만큼, 3년 연속 모바일 RPG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상 후보로는 넥슨의 'HIT', 넷마블게임즈의 '이데아', 네시삼십삼분의 '로스트킹덤'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인 이들 게임은 올해 모바일게임 순위에 줄곧 이름을 올렸다. PC 온라인게임 수준의 그래픽을 앞세워 게이머들의 눈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RPG 장르 외에는 넥스트플로어의 '프렌즈런'을 꼽을 수 있다. 카카오프렌즈의 IP를 사용한 러닝게임인 이 작품은 출시 직후 양대 마켓 인기순위 1위에 오르며 초반 흥행을 이끌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뚜렷한 성적을 낸 온라인게임이 없는 상황에서 3년 연속 모바일게임이 게임 대상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게임산업이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KT는 추석 연휴 동안 '올레 tv'와 '올레 tv 모바일'에서 VOD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사진제공 KT



LG유플러스는 IPTV에서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이통3사 최신영화·VOD 반값할인 이벤트 펑펑

긴 추석연휴, 'IPTV' 친구하자

이동통신 3사가 추석 연휴를 맞아 인터넷TV(IPTV) 콘텐츠 경쟁에 나선다. 극장가를 강타했던 최신 영화들을 발 빠르게 소개하는 것은 물론, VOD(주문형 비디오) 반값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SK브로드밴드는 B tv에서 추석맞이 'B tv 추석 선물전'을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B tv 추석선물전은 △최신 인기전(부산행 등 최신작 소개) △패키지전(최대 50% 할인 혜택) △취향대전(영화·TV·애니메이션 특집관) △명품 소장전(30~50% 할인 혜택)으로 구성된다.

KT는 올레tv와 올레tv 모바일에서 VOD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올레tv는 18일까지 BBC 선정 21세기 최고의 영화라는 테마로 '명작영화 1000원관'을 운영한다. 또 15일 '헌츠맨: 윈터스 워', 17일 '인사이드 아웃'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또 12일부터 18일까지 '부산행' VOD를 구매하면 애니메이션 '서울역'까지 볼 수 있다. 이밖에 드림웍스, 디즈니 등 유명 브랜드를 포함한 총 2300여 편의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추석을 맞아 U+ tv와 모바일 미디어플랫폼 '비디오포털'에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특집 메뉴를 마련했다. U+ tv에 마련된 '추석맞이 흥행대작 빅5' 특집관에서는 △터널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 △마이펫의 이중생활 등 최신 영화를 유료로 볼 수 있다. 또 '추석 통큰할인' 특집관에서는 △검사외전 △곡성 △귀향 등 상반기 인기 영화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인 터 뷰 방성민 브랫빌리지 대표

"인테리어 O2O 도전…시공문화 바꾼다"



기술자와 1대 1 연결 '닥터하우스'
온라인으로 가격·서비스 질 비교
혹시 모를 '바가지요금' 피하게 해
광주·부산도 서비스…내년엔 전국

국내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테리어 시장에도 O2O를 접목한 스타트업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14년 설립 후 케이큐브벤처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3차례나 투자 유치에 성공한 브랫빌리지가 그 주인공이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닥터하우스'는 공간을 수리하거나 리폼하고 싶을 때 필요한 기술자들과 일대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사무실에서 만난 방성민〈사진〉 브랫빌리지 대표는 "집수리나 인테리어 시 고객들은 비용이 비싸다고 느끼더라도 정확한 가격을 몰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듯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브랫빌리지는 이런 불편함을 도와주고자 만든 회사"라고 말했다.

닥터하우스는 이 같은 고객들이 발을 대신해 온라인으로 가격과 서비스 질을 비교해주는 역할을 한다. 혹시나 모를 '바가지'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공간 기술자들도 확보해 지속적으로 고객들을 관리해준다. 부동산 중개·인테리어 업체 등의 중간마진을 줄여 시공자의 인건비는 높였고, 고객들의 공사 비용은 낮췄다.

방 대표는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높은 탓인지, 올 상반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약 10배 가량 늘어났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만 서비스하다가 최근 광주와 부산에도 서비스를 론칭했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브랫빌리지에 따르면 한샘, KCC 등 가구·건축자재 업체들이 부가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인테리어 O2O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없다. 방 대표는 "아버지가 인테리어를 오래하셨는데 어느날 문득, 이 사업이 떠올라 도전하게 됐다"며 "가격 후려치기 없는 투명한 인테리어 시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시공 기술자들부터 변화시킨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방 대표는 회사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공 기술자들을 따라다니며 흙먼지가 날리는 현장에서 함께 업무를 보고, 그들의 애로도 청취하고 있다. 방 대표는 "현장에 나가면 내가 가장 막내"라면서 "현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 표준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986년생인 방 대표는 브랫빌리지가 4번째 창업이다. 조립 컴퓨터로 시작한 첫 창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택시 O2O 서비스 업체인 '리모택시' 대표까지 했지만, 대기업들에 밀려 결과는 좋지 못했다. 방 대표는 "당시 나를 믿고 리모택시에서 나왔던 팀원 3명이 지금도 함께 일하고 있다"며 "당시 혹독했던 경험들이 현재를 버티게 한다"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먹구름’ 잔뜩 낀 건설사 M&A

추석 이후 건설사 인수·합병(M&A) 시장이 다시 열리지만 먹구름이 가득하다. 앞서 M&A가 성사된 건설사들이 부당 해고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이미 여러 차례 유찰돼 매각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공격적으로 M&A에 나서고 있는 일부 건설사들도 회사 인수 후 부당 해고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추석 이후 매각에 나서는 건설사는 경남기업을 비롯해 삼부토건, STX건설 등이다. 경남기업은 이달 26일까지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시작으로 재매각에 나선다. 지난달 본입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삼부토건 역시 기업 매각을 재추진한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건설사들은 재매각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기대감이 높지는 않다. 일부 매각된 건설사들이 인력 감축이라는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건설기업노조 남광토건지부는 같은 날 서울 중구 순화동 남광토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광토건을 M&A한 세운건설의 부당 해고 행위를 지탄했다.

남광토건은 지난해 말 세운건설을 새 주인으로 맞고 올 초 2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 이는 2012년 8월 회생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쁨도 잠시 이 건설사는 법정관리를 졸업한 이래 계속해서 인력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운건설의 주도하에 강제적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운건설의 남광토건 인수 후 지금까지 떠난 노동자 수만 90명에 다다른다.



8일 전국건설기업노조 남광토건지부가 서울 중구 순화동 남광토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광토건을 인수합병한 세운건설의 부당해고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국건설기업노조

경남기업·삼부토건·STX건설 재매각 나서지만 기대감 크지 않아
세운건설, 남광토건·극동건설 인수 후 인력감축…노조 반발 불러

남광토건 노조 관계자는 “처음 인수단이 남광토건에 들어왔을 때부터 부서장급 인사들에 대해 ‘3개월치 월급을 미리 줄 테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봉명철 회장은 ‘연말까지 기존 현장들이 마무리되고 복귀하는 인력들이 새로 수주되는 현장이 없으면 모두 내보낸다’ 등의 해고 압박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세운건설이 인수한 극동건설 역시 이미 지난달 80여 명이 희망퇴직했다. 세운건설이 극동건설의 광주지점 설립을 확정해 퇴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점으로 주요 부서를 이전, 수십여 명의 직원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남광토건의 전철을 극동건설이 밟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M&A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핵심인력을 빼놓고 슬림화 작업이 진행되지만 현장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지나친 감축은 도덕적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세운건설은 경남기업 M&A에도 인수의향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M&A로 인해 일부 건설사들이 부당 인력 감축 논란에 시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건설사들은 주인을 찾기 위해 M&A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새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33년 업력의 중견 건설업체인 우림건설은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7월 청산을 결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남기업이나 삼부토건의 경우 각각 해외공사와 공공공사 부문 등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어 M&A 시장에서는 불리하지 않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서 건설업계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내년도 SOC 예산이 위축돼 M&A 시장이 올 상반기 대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새 주인 못찾는 대우조선 마곡부지
서울시 ‘상시접수’로 매각방식 전환

“기업들 투자 관심 높아질 것”

서울 마곡지구 대우조선해양 부지 매각방식이 접수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 상시체제로 바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내 대우조선해양 부지의 2차 매각이 지난달 불발된 데 이어 지난주 협의대상자 선정 통지일까지도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 시는 결국 접수 기한을 정해두지 않는 상시접수로 매각방식을 전환했다.

앞서 시는 4월 대우조선해양 보유 산업시설용지(대지면적 6만1232㎡, 12개 필지)에 대한 1차 매각을 진행했고 한 기업이 1개 필지에 관심을 보이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업체는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탈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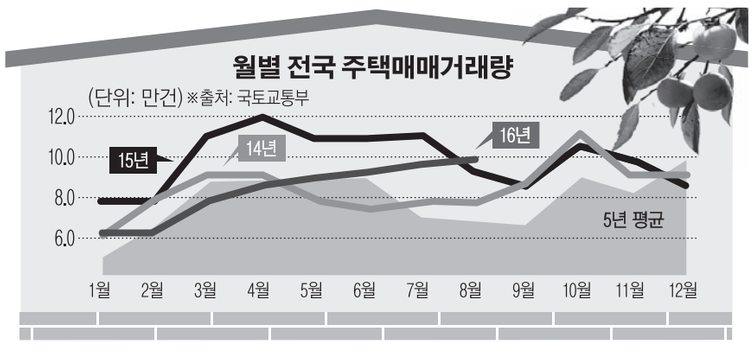
이어 시는 2차 매각을 진행했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들이 투자에 신중해지면서 1차에 이어 2차 매각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대우조선해양 부지는 마곡산업단지 내 단일기업 용지로는 LG그룹(17만6707㎡)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마곡지구 안에서는 금싸라기 땅으로도 알려져 있다. 2013년 해당 부지를 샀던 대우조선해양은 이곳에 연구개발(R&D) 엔지니어링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경영난에 빠지면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부동산 업계는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데다 해당 부지 용도가 한정돼 있어 개발에 나서는 기업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곡산업단지가 자리를 잡아갈수록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역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매각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지난달 주택거래량 9만8130건… 6개월째 증가세
최근 5년 평균 대비 45.1% 증가… 수도권 늘고 지방은 줄어

전국의 주택매매거래량이 2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8월 주택매매거래량이 9만813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전월 대비 2.7% 증가)했으며 5년 평균(6.8만 건) 대비로는 45.1%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초에 비해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택매매거래량은 2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66.1만 건으로, 2015년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18.9% 줄었지만 5년 평균(61.3만 건) 대비로는 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한 반면, 지방은 6.5% 감소했다. 8월 누계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14.8%, 지방은 23.2% 각각 줄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전년 동월 대비 3.3%, 연립·다세대는 12.2% 각각 증가했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0.9% 감소했다. 또 8월 누계 기준으로는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24.1%, 연립·다세대는 5.9%, 단독·다가구는 9.5%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헌 기자 carlove@

공동주택용지 신청자격 제한에 … ‘비상’ 걸린 중견 건설사
LH, 공급물량 축소에 규제까지… 주택사업 위축 불가피
재개발·재건축 진출도 대형사 브랜드 파워에 밀려 쉽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신청자격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건설사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형 건설업계는 이번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그동안 공공택지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펼쳤던 중견건설사들은 비상에 걸렸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6일 이후 공급 공고를 내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주택건설 실적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주택건설 실적 등과 관계 없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과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에만 1순위 신청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일부 건설업체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추첨에 참여하는 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번 조치의 이유다.

만약 계열사가 용지를 낙찰받은 경우 이들 업체는 모회사에 용지를 전매한다. 지난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계열사가 모회사에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이 같은 계열사 동원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견건설사들은 LH의 이번 조치에 비상이 걸렸다.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한 주택사업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토지 확보도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한 중견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이번엔 규제까지 도입해 중견사들의 주택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에서도 중견사들이 약진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여전히 대형사들과의 경쟁에서는 브랜드파워에서 밀리고 뉴스테이 사업도 너도나도 달려들어 쉽지 않아 앞으로 사업 계획과 추진이 막막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LH는 이번 규제를 일단 연말까지 시행한 뒤 효과를 분석해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읽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보인다!

경매 신의 한 수

이성용 지음 | 260쪽 | 올컬러 | 14,000원

《경매의 신》《월세의 신》《부동산의 신》 저자의 최신작!
경매 투자의 알짜 기술과 꼭 피해야 할 위험요소
만화 사례로 쉽고 재미있게 끝내기

2016년,
경매의 神과 함께
부자 좀 되어봅시다!

경매로 부자 되기 열망 지수 테스트

1. 빌라 초단타경매 환금전략을 알고 싶다 ☐ Yes ☐ No
2. 반값 낙찰 후 명도할 수 있는 모델을 알고 싶다 ☐ Yes ☐ No
3. 경매 물건에 미납관리비가 많을 때 대처법을 알고 싶다 ☐ Yes ☐ No
4. 건물만 경매로 나왔을 때 수익 올리는 법이 궁금하다 ☐ Yes ☐ No
5. 땅만 경매로 나왔을 때 수익 올리는 법이 궁금하다 ☐ Yes ☐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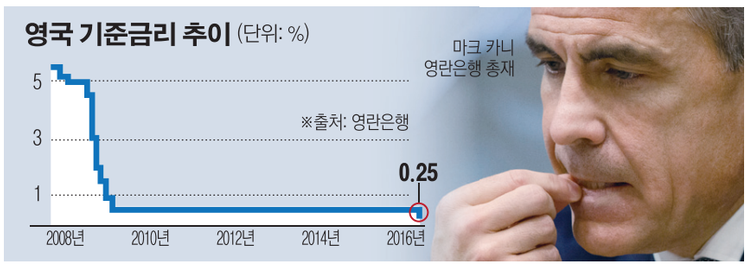
Yes가 1개 이상 나왔다면?
처방! 당신에게 이 책이 시급하다!

무한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英 중앙은행, 애플·다임러 회사채 매입

27일부터 회사채 매입
외국 우량기업 회사채도 포함
브렉시트 이후 기업 진출 꺼려
영국 정부 '구애작전' 나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회사채 매입 목록에 애플과 다임러 등 외국계 회사채가 포함돼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영란은행은 300여 개의 유가증권 매입 목록을 공개했다. 앞서 영란은행은 지난달 4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충격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25%로 낮추고 총 700억 파운드(약 103조8200억 원)의 채권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중 100억 파운드는 높은 신용등급의 회사채를 사들이는 데 쓰기로 했다. 이에 영란은행은 9월 27일부터 18개월 동안 신용등급이 높은 파운드화 표시 회사채를 사들일 예정이며, 이날 그 구입 목록을 공개한 것이다.

WSJ는 이번 영란은행의 채권 매입 목록에서 해외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통상 경기 부양을 위해 회사채 매입에 나서는 경우 자국 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는데 영란은행은 다른 중앙은행보다 해외기업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영란은행은 이번 회사채 매입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영국 경제에 상당히 기여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목록의 상당수는 영국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본사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미국 애플과 메르세데스 벤츠로 유명한 독일 다임러였고, 이 밖에 미국 생명공학기업 암젠과 프랑스 국영에너지 회사 EDF, 덴마크 동에너지 등이 영란은행의 '채권 쇼핑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물론 리스트에는 미디어 기업 데일리메일&제너럴트러스트, 에너지기업 BP,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등 영국 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영국과 달리 회사채 매입 대상을 유로화 표시의 비은행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영란은행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 도입 당시에 본보기로 삼은 일본은행(BoJ)의 경우 "사전에 일본에 인적자원이나 물리적 자본을 투자한 기업 또는 효율적 기업 지배구조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럽 역내 금융 허브 역할을 해왔던 영국은 그간 해외 기업에는 매력적인 투자처였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해외 기업들이 영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가 하면 다른 EU 회원국으로 법인을 이전하려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영란은행의 해외 기업 채권 매입은 이들을 붙잡기 위한 영국 정부의 구애작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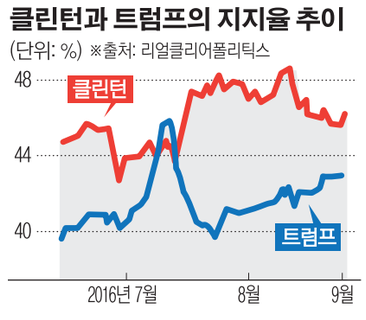
영란은행 관계자는 해외 기업 회사채 매입을 통해 이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실제로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지난주 의회에 출석해 채권 매입을 비롯한 경기부양책이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무엘 톰스 판테온매크로 이코노믹스 선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영란은행이 특정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해준다고 해서 그 기업이 영국에 새로 투자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클린턴 건강이상설에 민감한 금융시장

시장친화적 성향… 트럼프 리드
폐렴에 폭염 속 탈수 증세 보여
"투자자들에게 스트레스 될 것"



시장친화적 성향의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지면서 금융시장에도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클린턴 후보는 1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 15주기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여성 수행원이 부축하는 모습과 검은색 밴 차량을 기다리면서 휘청거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뉴욕의 기온은 섭씨 30도에 조금 못 미쳤고, 습도는 40% 정도였다. 클린턴은 폐렴에다 폭염 속에 장시간 서 있으면서 더위를 먹고 탈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은 2012년에도 머리 혈전으로 입원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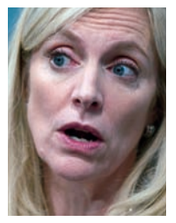
블룸버그통신은 클린턴의 건강이상설은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클린턴은 지지율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리드하며, 미국 정책의 파탄 등을 두려워하는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를 덜어줬다.

그러나 그가 갑작스럽게 건강이상설에 휩싸이면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리스크를 극복하고 순항하던 금융시장에 다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뉴욕증시의 S&P500지수는 9일 전날보다 2.5% 하락해 시가총액이 약 5000억 달러 증발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브레이너드 한마디에… 뉴욕증시 반등

"고용시장 완전 회복 근거 부족
금리인상 인내심 가져야" 강조
뉴욕 3대 지수 4일 만에 상승



"오늘날 '뉴 노멀'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고삐를 조이려면 신중해야 한다."

미국 금리인상 우려에 불안에 떨었던 미국 증시는 12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라엘 브레이너드〈사진〉 이사의 한마디에 기지개를 켰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날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물가상승률이나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의 고용시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는 긴축 근거가 부족한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과 불충분한 물가상승률 개선 등을 지적하며 금리인상에서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고용시장의 추가적 개선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 역시 점진적이고 보통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 예방적인 통화 긴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브레이너드 이사의 발언에 다우지수를 포함한 뉴욕 3대 지수는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마감했다. 지난주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대니얼 타룰로 연준 이사가 잇달아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당장 이달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다. 이 영향으로 9일 미국 S&P500지수는 2.5% 급락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최대 일일 하락폭을 기록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연준 내에서 여성 파워로 손꼽힌다. 그는 재닛 옐런 연준 의장과 함께 연준 이사진 중 여성 이사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다.

특히 브레이너드 이사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재무부 장관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와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이날 연설에 나섰으나 두 총재 모두 올해 의결권이 없어 시장 주목도가 다소 떨어졌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캐나다 포타쉬·아그리움 합병

300억 달러 '비료공룡' 탄생

반독점 당국 승인만 남아

캐나다에서 세계 최대의 비료업체가 탄생한다. 포타쉬 코퍼레이션 오브 사스캐치완(이하 포타쉬)이 경쟁업체인 아그리움과 합병하기로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사의 합병은 반독점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만 통과하면 내년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FT에 따르면 양사는 '동등 합병(merger of equals)' 방식으로 합병하며, 합병 후 시가총액은 약 300억 달러(약 33조 원)에 달해 비료업계 최대가 된다. 합병 후 탄생하는 새 회사의 지분율은 포타쉬가 52%, 아그리움이 48%다. 포타쉬 주주는 회사 주식 1주당 합병회사 주식 0.4주를 받게 되고, 아그리움 주주는 2.23주를 받는다.

최근 비료업계는 공급 과잉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시아 생산업체를 포함한 공급 카르텔이 와해하면서 핵심 시장인 남미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비료가격이 50% 넘게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합병에 대해, 반독점 당국의 승인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컨설팅업체 인테이커리서치의 올리버 해트필드는 "두 회사의 합병안이 당국의 시장 독점 우려를 살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비료업계 자체가 경쟁이 엄청난 데다 과잉 투자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이슬람 성지순례 돌 던지기에 몰린 인파



이슬람 정기 성지 순례(하지) 기간을 맞아 성지 순례객들이 12일(현지시간) 악마의 돌기둥에 돌을 던지는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자마라트 다리를 건너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병목 현상으로 인한 압사 사고를 막기 위해 전날부터 헬리콥터와 드론을 동원해 인파의 흐름을 감시하며 성지 순례객을 분산하고 있다. 올해 성지 순례에는 작년보다 15만 명가량 적은 18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카/AFP연합뉴스



정몽구배 첫 양궁대회 4억4000만원 쏜다



내달 20~22일 올림픽공원서
리우올림픽 2관왕 장혜진 등
국내 대표선수 160명 총출동
8강 진출 全선수에 상금 지급
현대차 "양궁 저변 확대 노력"

정몽구〈사진〉 현대차그룹 회장의 이름을 딴 국내 최대 규모의 양궁대회가 내달 개최된다.

현대차그룹과 대한양궁협회는 13일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16(이하 정몽구배 양궁대회)'를 대한양궁협회 주관으로 창설하고, 현대차그룹은 이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정몽구배 양궁대회는 리우올림픽에서 확인된 세계 최강 한국 양궁 선수들이 겨루는 한국 최고 권위의 양궁 대회로 치러진다. 양궁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높이는 한편 국내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창설됐다.

현대차그룹은 양궁 대중화를 통한 저변 확대와 한국 양궁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타이틀 후원사를 맡고 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주요 계열사가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대한양궁협회 관계자는 "대한양궁협회 설립 초기부터 30여 년 동안 전폭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해 한국 양궁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시킨 정몽구 대한양궁협회 명예회장의 공로를 기리려고 대회 명칭을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양궁대회 2016'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몽구배 양궁대회는 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과 잠실 주경기장 보조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열린 국내 주요 5개 전국 대회 성적으로 부여된 랭킹 포인트를 바탕으로 최고 실력의 남녀 선수 각 80명이 잠실 주경기장 보조 경기장에서 본선을 치르고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결선이 열린다. 리우대회 2관왕인 장혜진·구본찬 선수를 비롯해 6명의 금메달리스트뿐 아니라 지난 런던대회 메달리스트 등 국내 대표선수들이 총출동한다.

상금 총액은 국내 대회 중 최대 규모인 4억4000만 원이며 상위 3명뿐 아니라 8강전에 출전한 전 선수들에게 지급된다.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준우승자에게는 5000만 원, 3위 2500만 원, 4위 1500만 원, 5~8위는 각각 800만 원씩을 받게 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국 양궁의 오랜 후원 기업으로서 이번 대회를 통해 양궁이 인기 있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고 양궁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양궁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는 고객 최우선의 브랜드 이미지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철우 기자 acw@

카레·케첩…식품발전 47년 외길 인생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 별세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이 12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은 1930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69년 오뚜기식품공업을 설립했고 1971년 오뚜기식품공업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함태호 명예회장은 1969년 오뚜기 창업 이후 47년간 오직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길 인생을 걸어온 한국 식품산업의 산증인이다. 1969년 5월 국내 최초로 카레를 생산해 대중화했고 1971년 8월에는 토마토케첩, 1972년에는 마요네즈를 국내 처음으로 생산해 판매했다.

1978년에는 국내 최초로 2단계 고산도 식초 발효 공법에 의한 2배 식초, 3배 식초를 개발해 출시했다. 또 사과식초, 포도식초, 현미식초 등 식초의 다양화를 처음으로 이뤄냈다.

함태호 명예회장은 매주 금요시식에 직접 참여해 시식 평가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맛과 품질에 대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접 챙겼다. 이러한 그의 집념과 철학이 국내 식품회사 중 가장 많은 1등 제품을 보유할 수 있는 이유이다.

함 명예회장은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선구자로서 지난 2005년 해외 신시장 개척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2011년에는 국민 식생활 개선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한편,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16일이다.

이선애 기자 lsa@

한화 페친 100만명 넘었어요

페이스북 계정 개설 4년 만에
삼성·현대차 등 그룹 4번째



한화그룹은 2012년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지 4년 만에 국내 주요 그룹 중 삼성, 현대차 등에 이어 4번째로 계정 팬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그룹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소셜미디어 관련 대외 시상에서도 우수한 활동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5년 대한민국 SNS 어워드'에서 올해의 페이스북으로 선정됐고, '2015 한국 PR 대상'에서는 소셜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을 받는 등 4년간 국내 주요 소셜미디어 어워드에서 총 25건을 수상했다.

한화그룹은 소셜미디어를 불꽃축제, 교향악 축제, 해피선샤인 등 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이나 메세나 활동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심이나 계절적 이슈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페이스북 페친 100만 명 돌파를 기념, 100명을 선정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12일부터 30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한화그룹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취임 2주년 앞둔 진웅섭 금감원장 "아프지 말자"

최근 과로·병사 잇따라 건강관리 시스템 개선
월 2회 휴일근무 제한·기업주치의 제도 등 시행



오는 11월 취임 2주년을 맞는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임직원 건강 다지기에 나섰다. 취임 이후 '드러내기'식 현장 활동보다 검사 체계 개편 등 내부 역량 관리에 집중한 진웅섭 원장식 경영 일환으로 해석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감정근로부서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 지원, 야근 근절 캠페인, 휴일근무 월 2일 제한, 기업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주 내용이다.

올해 직원 중 과로로 쓰러지거나 병사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진 원장이 특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에는 인사팀 직원이 식사 중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암으로 투병 중이던 수석 조사역이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다.

이에 사전 건강관리는 물론 생활습관 관리, 질병에 대한 사후적 지원까지 통합적인 임직원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이다. 앞으로 심리 상담을 받은 직원이 심각한 진단을 받게 되면 상담사가 직접 총무국에 내용을 고지해 인사이동 시 참고하게 된다.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던 부서별 인력자원(HR) 연수도 내년부터 다시 실시한다.

시간 외 근무 시 사유를 명시하고 월 2일 이상 휴일 근무 때는 소속 임원이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기업 주치의 제도를 통해 주요 질환 소견자는 매월 2회씩 금감원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진 원장 부임 이후 주목받을 만한 검사나 제재보다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금감원의 위상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경영 후반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꾸준히 본인의 소신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진 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진과 만날 때 '정본청원(正本淸源·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 등 기본에 충실하자는 메시지를 주로 전달하고 있다. 전임 최수현 원장이 현장에서 야근을 불사하는 '진돗개식 검사'를 강조한 것과 달리 진 원장은 검사의 기본 방향을 컨설팅 검사로 전환하고 올해 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무궁화신탁 신임 CEO 최병길씨



무궁화신탁이 신임 최고경영자(CEO)에 최병길〈사진〉 전 서울랜드 대표를 영입하고 재도약에 나선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최병길 대표를 신임 CEO로 선임했다. 이번 신임 대표 선임은 최근 최대주주 변경 이후 단행된 첫 인사다.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체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평가된다.

무궁화신탁의 사령탑을 맡은 최 대표는 삼성물산 등 다양한 업권에서 부동산 개발과 유통관리, 경영 등을 두루 섭렵한 전문가다. 최 대표는 "그동안 국내외 기업 현장에서 무역, 유통, 제조, 부동산개발, 스포츠센터 개발 및 운영 등을 해온 노하우를 부동산 신탁시장의 저변 확대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노력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무궁화신탁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내실있고 탄탄한 회사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아 기자 kakim@

오리온 '베트남 고향감자 지원 프로젝트' 실시



강원기 오리온 베트남법인 사장(왼쪽)과 하하이 즈엉 베트남 동찌우현 현장이 농기계 기증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베트남에서 감자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기증식을 열고 '베트남 고향감자 지원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리온은 기증식에서 베트남 북부 하노이 지역에 있는 뜨마이면과 빈즈엉면에 최신형 트랙터와 로타리 등 1억 원 상당의 필수 농기계를 전달했다. 또 베트남 토양에 맞는 씨감자를 연구 생산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국립베트남농업대학교 IBA(농생물연구소)에 씨감자 연구시설을 신축해 기증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CJ헬스케어, 독거 어르신 위한 건강가방 제작



CJ헬스케어가 호흡기 질환이 잦은 가을철을 맞아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H-Bag(건강가방)으로 나눔 실천에 나섰다.

CJ헬스케어는 지난 9일 서울 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 곽달원 CJ헬스케어 대표와 임직원 30여 명이 '독거 어르신을 위한 H-bag 제작' 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중구자원봉사센터 강당에 모인 CJ헬스케어 임직원은 준비된 가방에 미세먼지 대비용 마스크, 구급키트와 함께 공기정화를 위한 씨앗키트, 건강음료 등을 넣어 H-bag을 만들었다.

CJ헬스케어 임직원이 9일 서울 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 어르신을 위한 H-bag 제작' 봉사활동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안중근 손도장 '행서족자' 낙찰가 최대 5억원 추정

케이옥션, 28일 가을경매 출품



안중근 의사의 글씨와 손도장이 찍힌 족자〈사진〉가 국내 경매에 나온다.

케이옥션은 오는 28일 서울 신사동 본사에서 개최하는 가을경매에 안중근 의사의 행서족자가 출품된다고 12일 밝혔다.

안중근 기념관에 사본이 걸려 있는 이 행서족자의 진품이 국내에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옥션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수감됐던 뤼순 감옥의 경수계장이 갖고 있던 물품으로, 일본인 소장자의 손을 거쳐 이번 경매에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족자에는 명심보감 훈자편에 나오는 '黃金百萬兩, 不如一敎子(황금백만량 불여일교자·황금 백만 냥도 자식 하나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 왼쪽에는 서명과 함께 약지가 잘린 안 의사의 왼손 손도장(장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행서족자의 낙찰가는 2억8000만~5억 원이 될 전망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권영걸 한샘 사장 40번째 저서 '신문명 디자인' 출간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에 기초한 신문명 디자인이 절실히 요구된다."

권영걸〈사진〉 한샘 사장이 13일 자신의 40번째 저서 '신문명 디자인'을 출간했다. 현재 한샘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CDO)로 있는 권영걸 사장은 서울대 교수와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소셜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다.

신문명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2014년 개설한 '신문명 디자인대학'과 지난해 개최된 '신문명 디자인 공모전' 등을 통해 권 사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키워드다. 그는 책을 통해 이 키워드를 보다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설명한다.

권 사장은 "동양과 서양이 지금까지는 착취와 모방의 관계였지만 이 관계를 상생과 창조로 선회하지 않는다면 인류에게 더 나은 미래는 없다"고 책을 통해 지적했다. 동서양 문명이 각자의 '편성(偏性)'을 극복하고, 양자 간의 '우성(優性)' 인자를 찾아내 고도한 차원의 결합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래 디자인의 과제라는 의미다. 특히 권 사장은 "현재의 낡은 문명을 대체할 새 문명의 길을 찾고, 문명의 형식을 결정하는 디자인의 새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강형석 ◇국장급 신규임용 △정책보좌관 양창호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 △대통령비서실(국토교통비서관실) 파견 김영한 △감사담당관 김태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획조정부장 채병곤 △경영지원부장 강전조 △연구운영실장 손문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수출이사 이유성

◆전력거래소 ◇1직급(갑) △기획처장 양성배 △정보기술처장 서경무

◆CJ제일제당 〈승진〉 ◇부사장대우 △생물자원사업부문장 정근상 △식품영업본부장 이성수 △식품연구소장 문병석 ◇상무 △SCM혁신팀장 이봉섭 △조직문화담당 김태호 △바이오 그린바이오1센터장 김소영 △바이오 화이트바이오센터장 양영렬 △소재곡물사업담당 송정호 △식품연구소 글로벌 R&D센터장 강기문 △식품미국사업담당 박린 △서울SU장 임영청 △KAM SU장 김상익 △씨푸드법인장 유병철

◆CJ대한통운 〈승진〉 ◇부사장 △경영지원총괄 최은석 ◇부사장대우 △CL1본부장 김호출 △CL2본부장 배해봉 ◇상무 △택배중앙사업담당 백유택

◆CJ주식회사 〈승진〉 ◇총괄부사장 △경영총괄 신현재 ◇부사장 △인사총괄 김홍기 ◇부사장대우 △전략1실장 구창근 △안전경영실장 김근영 △인사지원실장 조면제 ◇상무 △전략2실 E&M담당 하용수 △재경실 담당임원 강상우 △인사지원실 인사기획담당 이상렬 △감사실 감사1담당 문병선 △감사실 감사2담당 이형준 △법무실 법무1담당 양종윤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센터장 강명신 △미래경영연구원 산업1담당 이동박

◆CJ건설 〈승진〉 ◇상무 △건설본부장 서장우 △자산운영본부장 김현천

◆CJ E&M 〈승진〉 ◇부사장대우 △중국사업총괄 겸 영화사업부문장 정태성 △미디어솔루션부문장 이성학 ◇상무 △미디어콘텐츠부문장 이덕재 △엠넷콘텐츠부문장 신형관 △한국영화사업본부장 권미경

◆CJ올리브네트웍스 올리브영부문 ◇상무 승진 △영업본부장 성정현 △상품본부장 선보경

◆CJ헬로비전 ◇부사장대우 승진 △사업지원실장 박정훈

◆CJ오쇼핑 ◇상무 승진 △경영지원실장 강철구 △IMC사업부장 신정수

◆CJ CGV ◇상무 승진 △경영지원실장 정성필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부사장대우 승진 △대표이사 서장원

◆KBS △인재개발원 인재개발부장 강경수

부음

▲이중탁(삼영무역 대표이사 회장)씨 별세 = 11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 02-3779-1857

▲조현묵(전 강원도 교육위원)씨 별세, 조병길(전 광업진흥공사 익산사업소장)·병관(KBS 춘천총국 보도국 기자)·병조(삼성전자 부장)·병은(한국성공회대 교수)·병지(강릉 관동중 교사)씨 부친상, 한기항(전 동국제강 과장)·탁기현(상지대 교수)·이태수(이데아 건축사 대표)씨 장인상 = 12일, 강릉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33-610-3891

▲최병근(전 법무사)씨 별세, 최수행(올덴도르프 파나맥스 매니저)·석행(삼성전자 반도체 부장)씨 부친상 =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5시, 02-3410-6901

▲김진수(박문여고 교사)·경수(우리메탈 대표이사)씨 모친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5시, 02-3410-6917

▲이춘규(연합뉴스 국제경제부 기자·전 서울신문 도쿄특파원)·산규(가구업)씨 모친상 = 12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31-900-0444

연재소설

한만수 作 사유진 畵

서울 25시, 夜

제4화 슈퍼걸의 첫사랑 ⑨

금일봉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변향미의 입술을 더듬었다. 눈물이 짭짜름하게 입안으로 빨려들어 왔다. 젤리처럼 부드럽고, 핫케이크처럼 뜨거운 입이 이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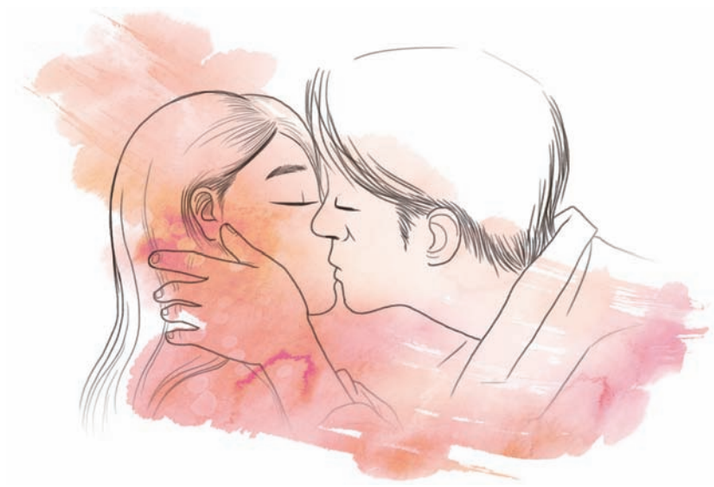
이 순간을 놓치면 죽을 때까지 후회를 한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온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

여자와 키스를 해 본 적은 없었다. 그래도 키스는 부드럽지만 강하고 날카롭게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상식 정도는 알고 있다. 변향미의 얇은 혀를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입안에서 허둥거리는 혀를 촉촉하게 적시며 은근히 팔에 힘을 주었다.

변향미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냉장창고 앞인지, 마트 안인지, 공중전화 부스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밤인지 낮인지도 생각이 나지 않고, 비가 내리는지 하늘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금일봉의 부드러운 혀가 입안을 천천히 맴돌 때마다 달콤한 크림 냄새가 가슴 안으로 뜨겁게 내려앉았다. 달콤한 크림이 쌓인 가슴 안에서 새 한 마리가 창공으로 길게 날갯짓하며 날아간다.

엄마! 새를 보았어. 내 가슴 속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새를 보았어. 은모래 반짝이는 강가 자갈에 앉아 있는 물총새를 닮은 새가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네. 엄마!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볼 수 없다지. 엄마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자꾸만 가슴이 떨리네….



스물일곱 살이 되도록 남자를 몰랐다. 처음으로 남자를 받아들이는 데 자꾸만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고생만 한 엄마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사랑해요."

금일봉은 변향미가 키스를 받아주니까 용기가 났다. 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풍만한 젖가슴을 더듬었다.

"어머!"

변향미는 젖가슴을 주무르는 감촉에 눈을 번쩍 떴다. 금일봉의 들창코가 얼굴을 문지르고 있다.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왜, 그러세요?"

"우리 지금 뭐한 거예요?"

변향미는 얼른 사무실 쪽을 바라봤다. 다행이다. 사무실 문은 닫혀 있다. 가슴을 쓸면서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다.

"키스."

"어머머, 말도 안 돼."

변향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가 언제 금일봉의 품에 안겨서 뜨거운 키스를 했느냐는 얼굴로 바라봤다.

"말이 됩니다."

"아니에요. 절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없었던 일이에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가봐야 합니다."

금일봉은 마음속으로는 웃으면서 시원하게 대답했다.

"그 남자를 신고했나요?"

변향미가 돌아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물었다.

"봐주고 싶지만 초범이 아닌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른 마트에도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같이 가 주실래요?"

"물론이죠."

변향미는 차갑게 금일봉 곁을 지나서 계단 쪽으로 갔다. 금일봉과의 키스의 감촉을 지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워지지가 않았다. 얼굴은 못생겼지만 키스의 감촉은 너무 날카로워서 가슴을 베어 버린 것 같아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부장님, 어서 가 보세요."

식품담당이 한없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금일봉에게 미소 짓고 나서 변향미에게 말했다.

"좀 늦어질지 모르겠어요. 정리하고 퇴근들 하세요."

마트가 끝나는 시간은 10시다. 변향미는 손목시계를 봤다. 9시가 넘었다. 금일봉에게 어서 가자고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조끼를 벗어서 빈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시간은 11시다.

변향미는 차들이 질주하는 도로를 바라보며 멈췄다. 금일봉이 옆으로 다가온다. 자신도 모르게 옆으로 몇 걸음 떨어지며 금일봉을 바라봤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금일봉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더 늦은 시간에 나올 뻔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한없이 고마웠고 믿음직스러웠다. 지금 보니까 냉장창고 앞에서 키스했던 것이 떠올라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마트로 가기는 좀 그렇고, 어디 가서 가볍게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이 시간에 영업하는 데가 있으려나?"

변향미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서 침대에 벌렁 눕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 금일봉이 너무 큰 일을 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마트 발전방향에 대해 대화하자는 데 거절할 수가 없었다.

"여름에는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데 많아요. 이왕이면 댁 근처로 갈까요?"

"집은 여기에서 택시를 타고 가도 기본요금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 근처에서 한잔 합시다."

금일봉은 변향미와 나란히 걸었다. 밤이 늦었지만 날씨가 더워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치킨에 소맥?"

"괜찮아요."

옛날통닭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치킨집 앞에는 몇 개의 테이블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었다. 거나하게 취기가 오른 30대 젊은 남녀들이 생맥주를 마시며 비틀거리는 웃음을 날리고 있다.

금일봉은 50대 남자 두 명의 옆에 앉았다. 그들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서 취기가 오른 얼굴로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CEO는 외롭고 고독하다

송권호의 역학경영



조선역학경영연구소장

민간기업의 CEO는 고독하다. 고독할 수밖에 없다. 치열한 경쟁 자체가 민간기업의 속성이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때만이 성장은 그만두고라도 제자리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과 기업의 모든 것을 걸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적지 않다. 그 결단의 결과가 좋으면 잘나가는 기업인이 될 것이고,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의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자신은 잊히게 된다.

단순히 잊히기만 해도 다행이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깨끗하게 정산해주지 못하거나 각종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관계 당국에 고발돼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을 오가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다.

CEO의 결단이 기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아보자.

국내 건설업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식어버린 국내 건설경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해외, 특히 중동에서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제살 깎아먹기식의 저가 수주가 일반화됐다.

2009~2011년에 수주한 해외 대형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수주 당시에는 큰돈을 벌 것처럼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일부 유명 대형 건설업체들은 소위 '승자의 저주'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저가 수주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수주한 프로젝트가 많은 건설업체일수록 2013년부터 대규모 적자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고강도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임직원을 내보내야만 했다. 또 주가가 폭락해 사회적 지탄을 거세게 받았으며, 일부 업체는 현재까지도 분식회계와 관련된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저가 수주 경쟁에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냉정하고 침착하게 잘 떨쳐낸 업체들은 지금도 발전해 나가고 있다. 정상적 이윤이 확보되는 프로젝트만 수주한 기업들은 해외 저가 수주 경쟁이 만연했던 당시 경쟁업체들에 비해 매출이 떨어지고 주가도 약세를 보이는 불이익을 당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저가 수주에 나선 유명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적자를 발표하며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때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높은 신인도를 인정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H개발이다. 경쟁 상대인 유명 대형 건설업체들이 2009~2011년 대규모 해외 건설공사 수주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주가가 대폭 상승한 데 비해, H개발은 매출액이 정체되고 시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 주가도 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유명 대형 건설업체 중 유일하게 해외 수주가 없어 부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장에서 인정받아 경쟁업체들보다 훨씬 높은 주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필자는 이 과정을 제3자의 입장에서 담담하게 글로 쓰고 있지만, 해외 저가 수주로 지탄받은 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 많은 임직원이 직장을 잃고 떠나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기업이 흥하건 망하건, 성장을 지속하든 멈추든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출발점은 해당 기업의 CEO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렸다. 이 점에서 CEO는 항상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

기업의 CEO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에는 정답이 없다. 세계적 경영학의 대가가 옆에 있다고 해도 CEO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다. 오직 좋은 결과만이 CEO의 결정과 결단을 정당화해줄 수 있다.

그렇다면 거액의 비용이 드는 경영컨설팅이 CEO의 고독하고 어려운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외환보유액 고갈로 대한민국이 경제주권을 제약받았던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주요 기업들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한다는 명분하에 외국계 유명 컨설팅업체에 거액의 자문수수료를 내고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명분이야 그럴 듯했지만 경영컨설팅 전문업체에 거액을 주고 제품개발 혹은 회사의 장기 경영전략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았던 대기업 중에는

경쟁·결단…모든 기업 경영자의 숙명
오직 좋은 결과만이 이를 정당화
고액 컨설팅 경영? 중대 과오 허다
한때의 '혜안'이 훗날 '패착' 되기도
경영학 이론만으로 어려운 위험관리
그 수단으로 '역학경영' 도입해볼 만

먼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핵심 인재들이 대거 이탈하는 바람에 경영상의 큰 차질을 빚는 비싼 대가를 치렀다.

이 같은 현상은 민간기업들의 경영 현장이 항상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 있으며, 매우 복잡한 변수들이 얽히고설켜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경영컨설팅 전문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는다 한들 경영상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경영상의 중요사항은 CEO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경험과 연구를 통해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고독하게 결단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CEO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수단으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중요한 경영전략을 수립·결정하는 과정에 역학의 조언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혹자는 본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역술가' 주제에 웃기는 소리를 한다면서 냉소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관없다. 누가 옳고 그르냐는 순식간에 판명 난다.

치열한 경쟁을 매 순간 체험하는 CEO 입장에서는 세계 유명 경영대학원의 교수가 만든 이론이든, 일개 역술가에게서 나온 이론이든 자신과 기업에 최선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릴 이유가 없다.

만약 기업 운영의 모든 것을 복잡한 수식으로 표현하는 수리통계학적 이론이나 현란한 그래프 작성만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떤 CEO도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CEO가 경영 현장에서 부딪치는 현안 중 대부분이 강의실에서 배운 경영학 이론과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기업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제대로 내렸는지 여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 판가름 난다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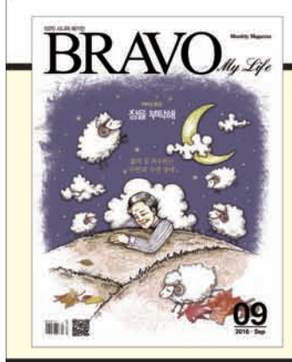


서점에 전시된 경영 이론서만큼이나 사회에는 수많은 경영 이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CEO가 경영 현장에서 부닥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경영 이론이나 논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뉴시스

이 같은 불확실성은 민간기업들의 끊임없는 부침(浮沈)의 근원이 된다. 세계적 대기업도 경영진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몇 년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회사로 전락하기도 한다. 몇 년 전에는 무명(無名)의 중소기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의사 결정 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으나,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살펴보면 매우 중대한 변수를 놓친 '바보 같은 결정'으로 판명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반대로 대다수 전문가의 반대에도 CEO가 뚝심으로 밀어붙인 '불도저 결정'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매우 현명했다는 찬사를 듣는 경우도 많다.

바로 이 점에서 기존 경영학 이론만으로 CEO들이 경영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확실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리스크 매니지먼트 수단으로 역학을 활용하는, 소위 '역학경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잠을 부탁해
PART1. 숙면을 위한 첫 번째 조건, 감정관리
PART2. 노화로 인한 수면질환 피해갈 수 없나
PART3. 세상을 바꾸는 수면의학 꿈꾸다 코슬립수면의원 신홍범 원장
PART4. 졸피뎀, 자살위험 근거 부족하다 홍창형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PART5. 세계 명사들의 낮잠 예찬
PART6. 낮잠 주무시고 가세요!
PART7. 불면증을 이기는 이완법 세 가지 정선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정선용 교수
PART8. 꿀잠을 원하는 당신에게 권하는 상품
PART9. 릴랙스를 부르는 잠자기 전 10분 요가
PART10. 좋은 잠은 치매를 예방한다 오쿠무라 아유미 오쿠무라메모리클리닉 원장

브라보가 만난 사람

"두 친구가 가고 없는 세상, 텅 빈 것 같다" 〈백년을 살아보니〉 저자 97세 김형석 교수

올해 '이세가 된 현경 교수와 결코 가볍지 않은 우문현답 미국 유니언신학대학 아시아계 최초 여성 종신 교수

"미술을 알아간다는 것은 친구가 생긴다는 것" 온가족과 유럽 미술관을 순례한 미술평론가 이주헌

9월의 맛
'황금콩밭'에서 수확한 두부 한 모
두부는 꾸밈없는 모양새에 맛도 심심하여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리고 부담 없이 즐기기 좋다. 흔히 만나는 식재료이지만, 제대로 된 두부 맛집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투박한 두부처럼 편안하고 진실한 맛을 자부하는 두부 전문점 '황금콩밭'을 찾아갔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詩가 있는 공간 이상국 시인

오늘도 달은 심심하다

달이 자꾸 따라와요

어린 아들 앞세우고
아버지 제사 보러 가는 길

-아버지 달이 자꾸 따라와요
-내버려둬라 달이 심심한 모양이다

우리 부자가 천방뚝 은사시나무 이파리들이 바람에 솨르르솨르르 몸 씻어내는 소리 밟으며 판길이 아저씨네 마당을 지나 옛 이발소집 담을 돌아가는데

아버지 적 그 달이 아직 따라오고 있었다

시집 〈집은 아직 따뜻하다〉에서

추석이 다가온다. 설이 전통적으로 송구영신하는 형식적인 예를 중시했다면 추석은 농사와 더위에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의미가 짙은 명절이다. 햅쌀로 밥과 술을 빚어 천신(薦新)하고 잘사는 집에서는 머슴에게까지 추석빔을 입혔다니 세시풍속 중 가장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었음은 틀림없다.

추석의 의미와 즐기는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달라진다. 그러나 아무리 산업사회의 추석이라 해도 귀향과 차례 등의 민족적 풍습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한다. 특히 올여름처럼 재앙 같은 폭염에 시달린 다음이고 보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추석과 그에 잇대는 연휴야말로 하늘과 조상이 주는 위로일 것이다.

추석을 대보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연중 가장 크고 밝은 달이 뜨기 때문이다.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때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그런 달을 슈퍼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로부터 추석은 휘영청한 달의 명절이었고 달은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였다. 이를테면 달은 우리의 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 바람나지 말라고 /아내가 새벽마다 장독대에 떠놓은/ 삼천 사발의 냉숫물"을 쓴 서정주 시인의 바람도 달이 다 내려다보고 있었을 터이고, 메밀꽃 필 무렵의 허생원이 물레방앗간에서 동네 처녀를 쓰러뜨린 것도 달밤이었다.

출가한 딸이나 손 귀한 집 며느리의 수태를 빌던 것도 달이었으며 고난의 역사 속에서 징용 나간 남정네나 군대 간 아들의 무사귀환을 빌던 것도 달이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연인들이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그리움을 의탁했던 것도 달이었다. 달은 우리 민족의 소원이나 연애를 다 알고 있었다. 오늘날 인공위성이 모든 통신을 연결해주듯 허공 중천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아들이 어렸을 적 어느 해인가 고향집으로 제사를 모시러 간 적이 있었다. 차로 가는 시골길을 빠르게 따라오는 달이 신기했던지 아들은 달이 왜 자꾸 따라오느냐고 물었다. 대답이 궁한 나는 달이 심심해서 그런다고 했다. 그 아들에 그 아버지였던 셈이다. 그러나 그 아들의 아들은 지금 달에게 관심조차 없을지 모른다. 그래도 달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심심하기 때문이다.

임철순 칼럼



주필

이 '재승박덕의 사회'를 어찌하나

그들은 머리가 좋다. 시험성적이 좋다. 어떻게 하는 게 출세하는 길이며 부와 권력에 명예까지 거머쥐는 방법인지 잘 알고 있다. 남을 딛거나 밟고 올라서는 수단도 본능과 체질로 잘 아는 사람들이다. 시험으로만 뽑는다면 어떤 공직에든 다 합격할 만한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요즘 물의를 빚고 비리와 추문의 의혹에 휩싸인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인상이다.

그들에게 결여된 것은 세상을 보편타당하고 공정하게 살면서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 아닐까. 남과 내가 다른 점, 남이 나보다 나은 점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능력과 자세, 이런 게 아닐까. 바꿔 말하면 그들은 덕과 상식이 없다.

세상일에 대한 두려움 없는 자신감, 거칠 것 없는 언동, 사회적으로 자기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이면 무시하는 태도는 덕과 거리가 멀다. 그런 이들의 특징이 재승박덕(才勝薄德)이다. 재주가 너무 승해 덕이 없는 사람들은 한때 빛을 보지만 결국은 남을 해치고 스스로를 망친다. 똑똑함과 지식이나 권력에 기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갖추는 것이다.

조선 중기의 두 재상, 오리 이원익과 서애 유성룡은 사뭇 대조되는 인물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원익은 속일 수는 있지만 차마 속이지 못하겠고, 유성룡은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만큼 서애는 분명하고 정확해서 빈틈이 없고, 오리는 너그럽고 부드러워 인심을 얻었다는 뜻이다. 서애를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불가기(不可欺)의 무서움보다 불인기(不忍欺)의 부드러움이 더 나은 게 아닐까.

오리가 타계한 뒤 효종은 그의 신위를 종묘에 배향(配享)토록 하면서 "몸은 옷을 이기지 못할 것처럼 가냘프나 관직을 맡으면 늠름하여 범하기 어렵고, 말은 입에서 나오지 못할 것처럼 수줍으나 일을 만나면 패연(沛然)히 여유가 있었다"고 평했다. 몸이 옷을 이기지 못한다거나 수줍은 듯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덕이 있는 군자를 이야기할 때 흔히 나오는 표현이다.

노자 도덕경 15장에도 "도를 체득한 사람은 (중략) 겨울에 강을 건너듯 머뭇거리고, 사방의 이웃 대하듯 주춤거리고, 손님처럼 어려워하며, 녹으려는 얼음처럼 맺힘이 없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소박하며, 계곡처럼 트여 있고, 흙탕물처럼 탁하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공직자들이나 사회 지도층은 어찌하면 그리도 매사에 자신이 있을까. 옷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옷을 입거나 남의 옷을 뺏으려고 안달복달하는 모습이 추하다. 중국 송나라 때의 명신 사마광은 "총명하여 사물에 밝고 굳센 것을 재(才)라 하고, 정직하게 한쪽으로 편벽되지 않은 것을 덕이라 하며 (중략) 덕은 재에 앞선다"고 말했다. 재와 덕을 함께 갖추면 성인, 재와 덕을 함께 잃으면 우인(愚人), 덕이 재를 앞지르면 군자, 재가 덕을 앞지르면 소인이라고 했다. 소인은 재능을 이용해 악행을 저지른다. 그래서 사람을 쓰려면 소인보다는 차라리 우인을 쓰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인이 더 잘되고 소인을 더 잘 기용하는 것 같다.

사회가 맑아지려면 덕 있는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만성은커녕 소기조성(小器早成), 아니 소기졸성(小器拙成)의 조무래기들이 쉬파리처럼 앵앵거리며 더러운 것을 묻어 옮기고 설치는 세상이어서는 곤란하다. 제대로 된 인물을 고르고 기용해 공직사회에 덕의 낙수(落水)효과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이든 민간 부문이든 새로 '임관'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의 낮고 그늘진 곳에 찾아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봉사토록 하면 어떨까. 없는 덕은 그들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억지로라도 만들어 주어 익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fusedtree@

오늘의 인물 9월 13일 한규복

해방 후 반민특위에 자수한 '신념형 친일관료'

"나는 양심적으로 민중을 지도하고 또한 민중의 의지를 대표하여 항거할 점은 어디까지나 항론도 사양치 않았으며, 평범한 정치로 민중에 임하고 공정렴근(公正廉謹)을 관계일생(官界一生)의 목표로 삼은 것은 천인(天人)이 공인(共認)하는 바이다." -반민특위 자수 편지 중에서-

한규복(韓圭復·1875.7.7~1967.9.13)은 일제 강점기의 신념형 친일 관료다. 그는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 도쿄전문학교와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에서 수학하다 귀국해 대한제국의 관리로 근무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 활동하기도 한 그는 와세다대 재학 중 유도를 배웠고, 조선의 유도 단체를 지원하는 한편 태껸 전수자 및 유파를 찾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술국치 후에는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에서 감사관으로 활동했다. 진주군수를 시작으로 동래군수, 충남 및 경북 참여관을 지냈으며 충북도지사와 황해도지사를 거쳐 중추원 참의를 수차례 중임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기업인으로 관변단체에서 계속 활동했다. 특히 태평양전쟁 중에는 조선임전보국단, 국민동원총진회 등 전쟁 지원 단체에 적극 가담했다. 이 공로로 수차례 훈장을 받은 그는 1935년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도 수록됐다.

광복 직후 미 군정청 고문직도 사양하고 누룩을 생산하는 한국곡자(麴子)주식회사를 설립, 사장이 됐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곡자 운영과 종친회 일을 하고, 1960년 주간종합잡지 '주간대중(週刊大衆)'의 동인이자 필진으로 참여했다.

서예에도 일가견이 있는 그는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4회나 수상했다. 민족정경문화연구소는 1948년 발간한 '친일파 군상'에서 "일층 진충보국(盡忠報國)하면 자기 개인은 물론, 민족적으로도 장래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 자"라고 평가했다.

장대명 편집부 차장 dmjang@

온라인 토닥토닥



패럴림픽 유도선수의 '뒤늦은 프러포즈'…"가장 값진 금메달"

시각장애 유도선수 최광근이 2016 리우 패럴림픽 남자 유도 100kg급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시상식을 마친 최 선수는 결혼 2년 만에 아내에게 뒤늦은 프러포즈를 해 감동을 줬다.

최광근은 11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카리오카 경기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테노리오 안토니오(브라질)를 발뒤축후리기 한판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경기가 끝난 뒤 곧장 아내 권혜진 씨를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메달 세리머니와 인터뷰가 모두 끝난 뒤에는 경기장 밖에서 아내에게 뒤늦은 프러포즈를 했다.

네티즌은 "정말 감동적인 프러포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금메달인 것 같다",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카드로 보는 세상



5일간의 추석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긴 연휴에 여행 계획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세계가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여행은 어떨까요? 옛 성벽과 빌딩이 어우러져 야경이 근사한 수원 화성, 조선 왕릉이 모여 있는 구리 동구릉, 작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세계 유산 다시 즐기기' 6곳입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goo.gl/p6g8zh



오동진의 영화판, 세상판



영화평론가

여름 감독들을 위한 약간의 변명

폭염이 간다. 여름 극장가도 서서히 정리돼 간다. '아가씨'로 시작된 올여름 극장가는 '부산행'이 기어이 천만 관객을 넘기더니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가 더위 못지않은 흥행 '기승'을 부렸고, 영화 엔딩을 두고 불만이 쏟아지긴 했지만 '터널' 역시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 이어 지금은 '밀정'이 늦여름의 후텁지근한 더위처럼 극장가를 달구고 있다. 세상사가 늘 그렇지만 극장가 역시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게 만든다. 떠들썩한 흥행의 와중에 '국가대표2'와 '고산자-대동여지도'의 실패는 그 어느 해 여름보다 더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고산자'와 강우석의 퇴락이 뼈아프고 서글프다. 한때 영화계 패자(覇者)였던 그 역시 이제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된 셈이다. 연출력이 심각하게 퇴조한 탓이었을까. 강우석 같은 인물은 DC인사이드 같은 팬덤 카페, 혹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영화 정보를 제공하는 왓챠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전혀 이용할 줄 몰라서일 수도 있겠다. 하루하루 눈썹이 날리도록 변하는 세상에 대해 무감각해서일 것이다. 영화감독 중에는 여전히 카카오톡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이들의 고집스러운 복고주의가 꼭 잘못된 것일까. '고산자'를 낡은 것으로만 치부하는 세태 분위기에 선뜻 손을 들어주기 힘든 심정이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올여름 흥행 시즌만큼 논쟁적이었던 때도 드물다. 이 역시 두고두고 기억될 공산이 크다. 논란은 '역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영화의 내용이 역사적 팩트에 충실한 것이냐, 윤색을 넘어 역사 왜곡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아니냐 등등 거친 말들이 오갔다. 공격적인 화자들은 영화감독들 중 일부가 도무지 역사관이 없다고 질타했다. 아마도 '인천상륙작전'이나 '덕혜옹주'에 몰린 얘기들일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이야 태생적으로 논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다. 좌우 이념 대립이 특히 6·25 전쟁의 시발과 기원을 두고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맥아더 동상을 두고 철거를 해야 한다는 둥, 그러면 안 된다는 둥 얼마나 갈등이 심했던가를 기억하면 이 영화가 어느 쪽에 발을 두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가늠케 했다. '인천상륙작전'이 일부에서 '국뽕영화(히로뽕에 취한 듯 국가주의에 취한 영화를 뜻하는 속어)'라고 불렸던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이 영화가 극우 파시즘에만 기반한 영화였을까. 몇몇 낯간지러운 장면을 빼고는 오히려 이념적 톤앤매너를 지키려는 안간힘이 엿보일 정도였다고 하면 작품을 편드는 게 될까. 반면에 그레고리 펙, 데이빗 니븐 주연의 1961년작 '나바론 요새'를 흉내낸 작품일 뿐이라고 하면 이번엔 감독과 제작자가 난리를 치는 건 아닐까.

'덕혜옹주'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 역시 다소 매몰차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영화를 본 500만 가까운 관객이 오히려 구한말, 일제 강점기의 역사에 대해 되돌아볼 계기가 됐다고 조금 여유로운 시선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한 것은 아닐까. 허진호 감독이 역사의식이 없다거나 역사관이 비뚤어졌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자본'이 없었을 뿐이다. 올여름 만난 흥행작 감독의 대부분, '아가씨'의 박찬욱과 '터널'의 김성훈, 심지어 '부산행'의 연상호에게까지도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겠다.

올여름 한국 영화의 경향은 한마디로 웰메이드 영화의 굴레에 스스로 안착해 막대한 상업적 수익의 창출에 합의해 줄 수밖에 없음으로 해서 자신의 고유한 작가적 정체성을 유기(遺棄)한 감독들의 작품이 양산된 한 해였다고 기록될 것이다. 40대 후반~50대 중반 감독들의 불안한 실존이 하늘 아래 범작을 가득하게 만들었으며 자본주의적 불안이 예술적 영혼을 잠식하고 있음을 실증해낸 여름이었다. 따라서 몇몇 작품을 두고 벌어진 역사 논쟁은 한국 영화가 지나치게 대작 상업화되는 경향과 그 아우라 안에서 비판의 논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늘 그렇지만 자본은 역사를 입맛에 맞게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객석

이 강 웅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장

기후복지 위한 도시열섬지도



유난히 극심했던 올여름 폭염. 1994년보다 최악의 폭염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 이는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높아진 탓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이 느끼는 기온은 공식적인 기상청 관측 기온과 점점 괴리가 생기고 있다.

서울의 기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송월동 서울관측소에서 측정한다. 그러나 이 공식 기온은 건물 사이, 대로변, 도시 숲 등 주변 환경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거대도시로 발달함에 따라 건물이 밀집되어 있을수록 바람이 정체되고 오염물질의 분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복지를 위해서는 도시의 열적 취약성 정보를 제공해주는 '도시열섬지도'가 필요하다.

도시열섬지도는 기온 예측자료와 도시기후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 규모(5m 간격)의 초고해상도 최고·최저 기온값을 산출해낸다. 어느 지역이 온열 스트레스의 상세위험 지역인지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 정보는 폭염 특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서울관측소의 기온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 지역이 어디인가를 알려준다. 더 나아가 폭염이나 열대야 현상 취약지역을 서울시 450개 동 단위 이하로 세세하게 잠재위험도 등급을 산정해낼 수 있다. 이렇듯 도시열섬지도는 도시의 기후복지 운영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도시계획과 관리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온열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후위험 지역이라면 온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온열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불투수 포장률 개선, 인공 그늘막 보급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열섬정보는 향후 폭염 및 열대야에 관한 영향 예보를 실시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또한, 열적 취약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산출하여 국민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기후영향 평가를 적용한 도시계획 정책 및 도시관리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자수첩

윤 필 호 정치경제부/ beetlebum@

당신들의 '제3지대'



최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수많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상품성 있는 이슈로 '제3지대'를 꼽을 수 있다. 이는 각 당에서 조금씩 다른 처지에 놓인 각각의 화자들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불을 지핀 제3지대 논의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번지는 모습이다. 물밑에서는 정계 거물들을 중심으로 타이틀 선점을 위한 이합집산이 펼쳐졌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최근 회동을 가졌고, 탈당한 이재오 전 의원은 독자적 세력화를 위해 창당 작업에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정운찬 전 총리와 7일 만나 함께하자는 뜻을 내비쳤고, 새누리당 주류 계파인 친박(친박근혜)계도 이에 질세라 국민의당에 러브콜을 보냈다.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도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국민의당은 안 전 대표를 담보로 부지런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특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행보가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3지대론은 비주류의 일원이거나 주류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을 위한 일종의 대안론이다.

하지만 이들이 제3지대라는 신대륙의 토양을 구축하는 논리는 새롭지 않다. 당권 경쟁에서 밀려나고, 선거에서 떨어진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이 주연을 자청한다. 지역이나 당의 이해관계, 혼자만의 대세론 등 낡아빠진 근거를 무기로 꺼내며 착각하는 모습이 서글프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소외된 채 새로운 이념과 방향, 콘텐츠 없이 마련된 새판을 선택해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도 난감하다. 단지 양분된 시장의 구조에 기대 상품 설명도 없이 신제품을 팔려는 속셈으로는 어떤 감동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제3지대가 반복됐지만 결국 선택은 국민들의 몫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경아의 소곤소곤

자본시장 2부 차장

김영란법에 '웃픈' 여의도 증권가



"아무래도 김영란법 최대 직격탄이 미치는 곳을 꼽으라면 여의도 증권가가 1순위일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난 증권업계 고위 임원이 난데없이 김영란법 푸념을 늘어놓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애초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28일 시행하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후폭풍이 여의도 증권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우려에서다.

우선 국내 자본시장의 큰손이자 갑(甲)인 국민연금의 자금을 위탁받는 금융사들도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으로 대다수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행 김영란법 11조 1항 2호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공적기관인 국민연금의 자금을 위탁받는 운용사나 증권사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중 하나인 '공무수행사인(私人)'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부 로펌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한 증권사 법인영업 담당자는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하면 KTX 교통비만 해도 타격이 큰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위탁 증권사들도 해당된다면 교통비도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다"며 "사실상 큰손인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는 입장에선 여러모로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사보나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던 금융사들도 전통 있게 발행해오던 간행물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원래 방송, 신문,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말하는데,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가운데 잡지나 기타 간행물을 발간하는 곳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의 발행물을 위탁 받아 외부에서 발행하던 중소 인쇄, 출판업체들은 난데없는 금융기관 고객들의 선택에 자칫 밥그릇을 뺏길 위기에 놓였다.

여의도에 있는 일식집, 한우집 등 식당들의 표정도 우울하긴 마찬가지다. 당장 접대비의 상한선이 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국내산을 고집해 단가가 비싼 이들 식당에 고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최근 만난 증권사 사장은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전반에도 김영란법이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브로커리지 대신 부동산, AI(대안투자) 등 다른 특화된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있다"며 "실상 주식 고객 기반이 자영업자들이고 여유자금으로 재테크나 주식투자에 나서는 것인데, 생계가 막히면 증시 거래대금 자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본질은 박수칠 만하다. 하지만, 당초 공공부문의 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법 취지와 달리 국내 경제중심지 여의도는 물론 다른 민간영역의 밥줄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씁쓸한 진실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법 테두리가 아직은 모호하다 보니 자칫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을지 우려되는 시점이다. kakim@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5	국제팀	(02)799-2643
산업1부	(02)799-2663	산업2부	(02)799-2664	사회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1부	(02)799-2641	자본시장2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48
뉴미디어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사진영상팀	(02)799-2646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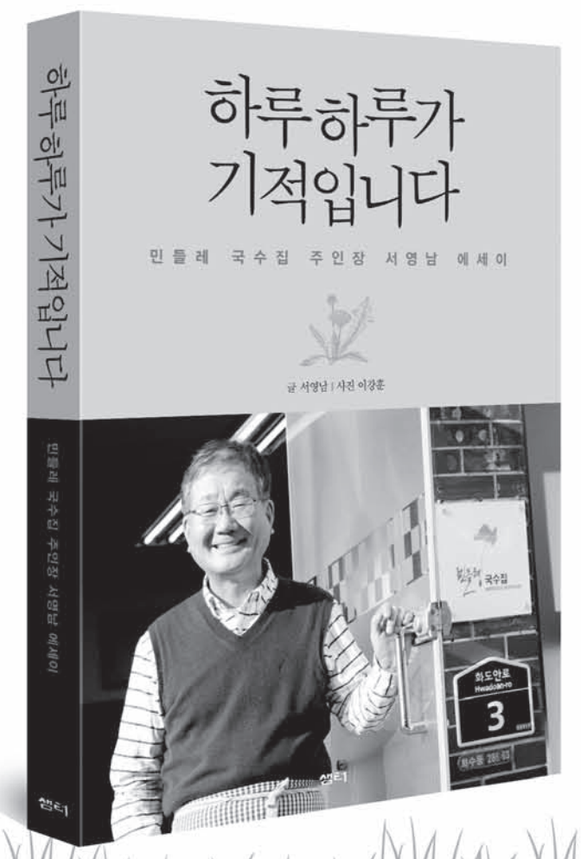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www.isamtoh.com 샘터

"아직 문 안 닫았어요?"

배고픈 이들에게 한 그릇의 사랑을 주는 민들레 국수집 13년의 기적

2003년 만우절 민들레 국수집은 문을 열었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나누기만 하는데도 거짓말처럼 13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고받은 것은 한 그릇의 밥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지쳐 희망마저 버렸던 이들이 하나둘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의 일상 안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 숨겨둔 희망을 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웃는 날이 민들레 국수집과 만나는 날입니다. 감동해서 웃고, 이제는 가족 같은 민들레 수사님을 만나서 반가워 웃고, VIP 손님들과 공통 분모를 나누다 보니 또 웃지요. 이렇게 좋은 민들레 국수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_홍미정 님

세상을 편견으로 보았던 저의 시선을 부끄럽게 해준 민들레 공동체. 가장 낮은 자리로 흐르는 그 따뜻한 풍경 안에서 얼음 같던 편견이 녹았습니다. _서장훈 님

• 민들레 국수집을 후원하고 응원하는 이들이 국수집(www.mindlele.com) 홈페이지에 남긴 글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민들레 국수집 주인장 서영남 에세이 글 서영남 | 사진 이강훈 | 288쪽 | 무선철 | 값 13,000원

일본 투어는 오직 골프만이 아닙니다!!

京都 〈교 토〉 비와코 오츠 프린스호텔로 오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골프+관광+쇼핑+온천+미식 등이 매일가능!!

★ 모든 객실에서 비와코 호수 조망 가능
★ 오츠 시내에 있는 이온몰, 백화점, 맛집, 도보 관광
★ 미즈노 클래식을 개최한 세타골프장 54홀 – 15분 거리
★ 27홀 라운딩이 가능한 게이한 골프장 27홀 – 25분 거리
★ 교토 시내까지 JR로 20분 – 반나절 관광 가능
★ 아시아나 조/석 패턴으로 매일 라운딩 가능
– 3박4일 기준 (18H + 27H + 27H + 18H)
★ 인천, 김포, 부산, 제주 출발 가능

名品 명품 오사카 골프투어(90H) 4일 1,390,000~ ▶매일출발

*포함 : 왕복 항공 관련경비, 호텔 숙박(2인1실), 호텔 조/석식, 송영비, 그린피/카트피, 여행자보험
*불포함 : 중식

■ 판매주관사 | IY tour 아이와이투어 아이와이투어 02-588-8820 www.iytour.kr

증권판 '대마불사'?… IB '錢의 전쟁'

'초대형 IB 육성안' 셈법 바쁜 증권업계

지난달 초 정부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안'을 발표했다.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금융투자 회사를 만들고자 은행만 가능했던 업무의 일부를 자기자본 3조·4조·8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정책 변화에 민감한 금융산업의 특성상 증권사들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덩치 전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의 거대한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8조 원 증권사에 주는 혜택이 아주 매력적" = 정부의 초대형 IB 육성안은 장래에 자본금 10조 원이 넘는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는 취지인 만큼 자기자본 문턱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주어지는 '당근'의 크기도 커지는 구조다.

자기자본 규모별 주요 인센티브를 보면 자기자본 3조 원이 넘는 증권사에는 기업금융업무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영업용순자본비율(NCR-II)을 적용해 기업 건전성 부담을 완화해준다. 또 자기자본 4

자기자본 3조~8조 단계별 업무 허용 방침에 KB투자證, 자본확충 '4조클럽 가입' 잰걸음
미래에셋, 미래에셋대우 합병땐 6.7조 '선두'
8조 충족 위해 올해 배당없이 이익유보 전망

조 원 이상 증권사에 어음발행과 외국환 업무를 각각 허용해 자금조달 창구를 늘려주고 수익사업을 다양화하는 길을 열어 주게 된다.

증권사들이 군침을 흘리는 기준은 8조 원이다. 자기자본 8조 원을 넘긴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까지 레버리지 비율에 반영되지 않는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종합투자계좌(IMA)를 판매할 수 있고,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되던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도 시작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인센티브"라고 평가한다.

◇선두그룹 '4조 원 클럽'… 미래에셋·NH = 당장 초대형 IB 육성 방안으로 직접 수혜를 입는 증권사는 통합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두 곳뿐이다.

현재로서 '자기자본 경쟁'의 선두는 미래에셋증권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와의 합병작업이 마무리되면 국내에서 가장 덩치가 큰 회사가 된다. 합병법인의 예상 자기자본은 6조7000억 원으로 최상단인 8조 원에 가깝게 다가선다. 이에 통합 미래에셋대우는 가시권에 있는 8조 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은 우선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을 유보하는 방법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당기순이익은 1746억 원, 미래에셋대우는 2988억 원이다.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자기자본에 편입한다면 일단 7조 원을 넘기게 된다. 여기에 미래에셋 합병증권사가 보유할 자사주를 매각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르면 연말 미래에셋이 8조 원 기준을 무난하게 충족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래에셋과 함께 현재 자기자본 4조 원 기준을 넘는 증권사로는 NH투자증권이 있다. NH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약 4조5000억 원 수준으로 일단 4조 원 기준까지는 넘어섰지만 마지막 관문인 8조 원까지는 좀 멀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장 NH투자증권이 8조 원 기준을 맞추겠다고 대규모 유상증자 등의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저마다 속사정 다른 3조~4조 원 그룹 = 자기자본 3조~4조 원 그룹에는 현대증권 인수를 통해 자기자본 3조8000억 원대로 몸집이 불어난 KB투자증권을 비롯해 삼성증권(3조4000억 원), 한국투자증권(3조2000억 원) 등이 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최근 50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3조 원대로 올렸지만 당분간 더 이상의 자본확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조 원 클럽 가입이 가시권에 있는 KB투자증권은 어떻게든 자기자본 확충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크다. 실제 이익잉여금 증대와 증자 등을 통해 연말에는 자기자본 4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4조 원 문턱에 다가선 KB로서는 어떻게든 '4조 원 클럽'에 합류할 것"이라며 "이 경우 국내 투자사업자는 없는 만큼 3강 체제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새로운 인센티브를 얻고자 유상증자나 인수합병(M&A)을 고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왔거나 잠재적 매물로 거론되는 하이투자증권, SK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 주목받는다. 자기자본 7000억 원 규모인 하이투자증권을 삼성이나 한투가 인수하면 단숨에 자기자본 4조 원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증권업계 관계자는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인수 메리트가 없어 흥행이 되지 않았던 만큼 대형사들이 증자와 M&A 사이에서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권업계의 덩치 키우기 경쟁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제기된다. 단기간에 자기자본을 늘리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을 늘린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

기존 제도상 허용된 업무

자기자본 규모	3조 이상 ~4조원 미만	4조 이상 ~8조원 미만	8조원 이상
프라임브로커 업무	○	○	○
기업신용공여	○ (일반 신용공여와 합산 자기자본 100% 한도)		

이번에 추가로 허용되거나 규제가 완화된 업무

– 기업금융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허용

	3조 이상 ~4조원 미만	4조 이상 ~8조원 미만	8조원 이상
발행어음	–	○ (자기자본 200% 한도)	○
종합금융투자계좌	–	–	○

– 원활한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규제개편

레버리지 규제 적용 제외	–	○ (발행어음 한정)	○ (발행어음, 종투계좌 한정)
새로운 건전성 규제체계 마련	○	○	○
신용공여 한도 증액	○ (기업 대출을 별도로 자기자본 100%까지 허용)		

–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제공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 · 중개 업무	○	○	○
기업환전 등 일반 외국환 업무	–	○	○
부동산 담보신탁	–	–	○

정부의 인센티브 기준별 증권사 자기자본 현황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각 증권

3조 이상	KB투자증권+현대증권	3조8000억원
	삼성증권	3조4000억원
	한국투자증권	3조2000억원
4조원 이상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대우	6조7000억원
	NH투자증권	4조5000억원
8조원 이상	※연내 미래에셋 달성가능 전망	



"틈새시장이 살길" 실적반등 노리는 중소형 증권사

교보證, SF·PF 금융자문 부문 선전 상반기 영업익 532억 11.7% 증가
HMC투자 대체투자 강화·한화투자 IPO 주관사 선정 등 차별화 행보

중소형 증권사들이 IB(투자은행)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며 실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ELS 투자로 큰 손실을 보았던 한화투자증권도 IB를 통해 실적 부진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보증권, HMC투자증권 등이 IB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등 중소형 증권사의 IB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KTB투자증권은 지난 7월 이병철 부회장과 최석종 사장 취임 이후 대체투자 부문을 강화하고 IB 특화 증권사로 탈바꿈을 시작했다.

이에 지난달 28일에는 에어버스 A330-300 기종 매도에 나선 싱가포르항공과 총 8560만 달러(약 950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 계약 체결은 국내 증권사가 중국 항공기 운용리스사와 매입까지 성사시킨 첫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교보증권은 2016년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472억 원으로 20.7% 증가했다.

교보증권 측은 "실적 증가 배경으로 IB사업 부문인 구조화금융(SF), 프로젝트금융(PF)에서 금융자문에 집중한 요인이 주효했다"며 "이 부문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한 약 400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상반기 주요 IB 영업활동으로 마곡지구 오피스 개발사업, 하남미사 토지 유동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모두투어리츠 대표 주관사로 9월 중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HMC투자증권도 올 상반기 금융자문 및 대체투자 등 IB 부문의 선전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거뒀다. 1분기 영업이익은 21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 늘었다. 이에 회사 측은 금융자문과 대체투자 등 IB 부문에서 차별화된 딜과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IB사업 부문의 뛰어난 수익성이 검증되자 한화투자증권이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IB 사업 확대로 실적 반등을 꾀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2분기에만 1000억 원의 영업손실과 73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영업 부진과 동시에 지난해 상반기 발행한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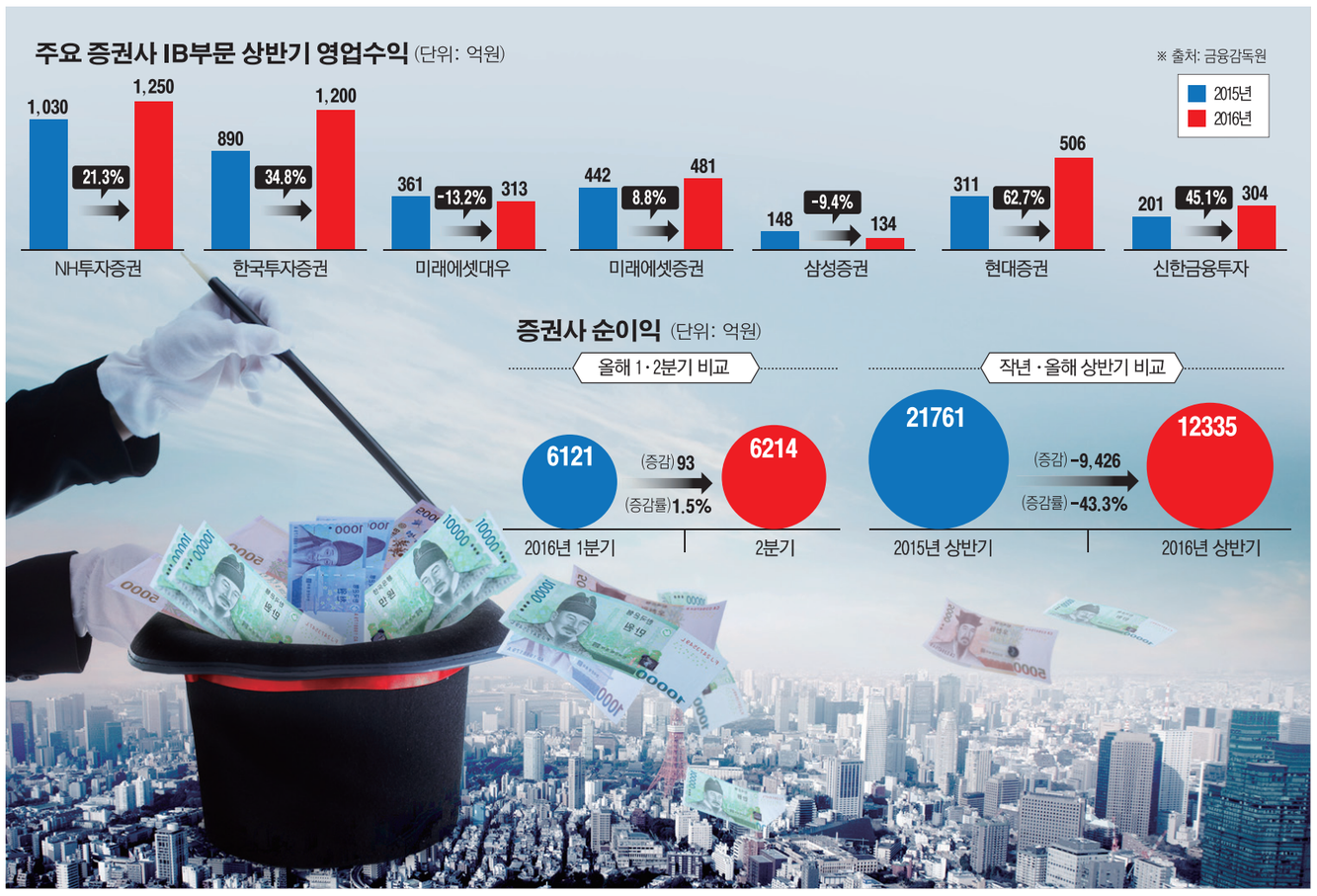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두산밥캣 IPO(기업공개)의 공동 주관사로 나섰고, 밸레상스서울호텔(구 르네상스호텔)의 재개발 단독 금융주관사로 선정되는 등 IB부문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승주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그룹 주력 사업인 유화 방산 태양광 사업과 연관된 IB 자문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해외 증권사와의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PEF 설립을 진행하는 등 사업영역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석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룹 내 매각 이슈가 있는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면 중소형사별로 각기 다른 특화 전략을 내세워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발표한 중기 증권사를 비롯하여 증권사별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영역으로 IB형과 해외상품 중개 등 특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두선 기자 sun@

증권사 상반기 순익 43% 급감할 때 IB 실적은 10% 늘어



증권업계 새 먹거리 'IB'

몇 년간 이어진 업황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이 '투자은행(IB)'에 주목하고 있다. IB가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증권사들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IB부문은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며 증권사들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IB 관련 수수료, 2분기에만 3632억
NH증권 인수주선·M&A자문 호조
상반기 1250억 수익 전체 영업익 절반
한투·현대·미래에셋 등도 가시적 성과

◇올 상반기 증권사 실적, IB가 갈랐다 = 1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증권사들은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54개 증권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1조23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1761억 원)보다 43.4% 감소한 것이다. 수수료 수익도 감소해 올 상반기 증권사들이 걷은 수수료 수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한 3조7568억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증권사들의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을 운용하다 대규모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 파생상품과 관련해 손실이 무려 1조703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IB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IB 관련 수수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한 것. 특히 증권사들은 올 2분기에만 IB 관련 수수료로 3632억 원 거둬들였다. 이는 1분기(2394억 원)보다 51.7% 증가한 규모다. 이 같은 양호한 실적은 대형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IB 업무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 1조 원 이상의 대형사(11곳)의 IB 관련 수수료 수익이 19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한 것이다.

◇한투·NH투자증권, 단연 눈에 띄네 =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단연 돋보였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올 상반기 IB부문에서 125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NH투자증권의 올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NH투자증권은 인수주선과 인수·합병(M&A) 자문에서 500억 원에 가까운 실적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냈다. 또 해태제과,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의 IPO(기업공개)를 주관하고 삼성엔지니어링과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를 대표주관하는 등 주식자본시장(ECM)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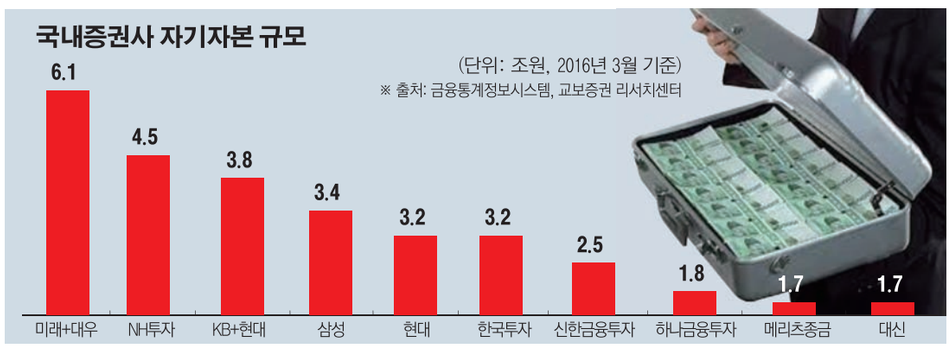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합병 이후 IB사업부 강화에 주력해온 NH투자증권이 IB부문에서 예상을 넘는 수익 창출을 이어오고 있다"며 "자기자본을 활용한 수익창출이 증권업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전반적인 실적이 다소 줄어든 상황임에도 IB부문에서는 올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실적을 거둬들였다. 올해 초 IB그룹을 신설하며 공격적 영업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IPO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는데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삼성바이로직스와 두산밥캣·이랜드리테일 등 올해 주요 IPO 거래를 도맡아 하반기에도 IB 부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이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문가인 김성환 IB그룹장을 영입하면서 호주 캔버라 루이사로손 빌딩과 벨기에 브뤼셀 아스트로타워 등 해외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 나섰다. 이외에도 현대증권(506억 원)과 미래에셋증권(481억 원)이 각각 62.7%, 8.8% 증가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뒤를 이었다. 문선영 기자 moon@





또 '몸집' 타령?… "규제부터 풀어라"

자기자본 4조~8조 증권사 어음 발행·외국환 업무 등 허용 대형IB 유도
투자업계 "투기적 시각 규제 여전… 덩치 키우기보단 상품개발 초점을"

'일단 덩치부터 키워라.'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에 담긴 메시지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4조 원 또는 8조 원 이상인 증권사에 새로운 업무를 허용했다. 내년 2분기부터 자기자본 4조~8조 원인 증권사는 1년 만기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8조 원인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IMA)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비슷하지만 해당 증권사가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재 은행에만 허용되는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자기자본 단계별로 당근을 달리 제시해 궁극적으로 10조 원 이상의 초대형 IB 탄생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초대형 IB에 근접해 있는 3조 원 이상의 증권사들은 해당 인센티브 효과에 의문을 나타낸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금조달, 자본규제 완화, 신규업무 확대 등에서 규제 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자금조달 측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은 현재 대부분 증권사가 전자단기사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사는 2%대 초반의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수익성 측면이다. IMA는 은행의 수신 업무를 증권사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이라는 허들이 존재한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증권사 입장에선 4조~8조 원대에 주어진 인센티브가 증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희석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감수할 만큼 매력적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기존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지 않는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증권업에 대해 투기적인 시각을 갖고 여전히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단순히 덩치를 키우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모험자본 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건전성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은 2013년 금융위가 내놓은 일명 한국형 IB 육성 정책의 확장판이다. 당시 금융위는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증권사 5개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해 신용공여를 허용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에도 증권업계는 과거를 답습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순영업수익에서 위탁매매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6.7%에 달했다. 전통적인 투자은행 부문인 인수주선, M&A 자문 등은 각각 7.9%, 0.4%에 불과했다.

김미정 기자 mjk@

“수수료 기반 IB비즈니스 시대 지났다 M&A 지원·지분투자 등 사업 폭 넓혀”

인터뷰 정태영 대신증권 부사장·IB사업단장

저축은행 등 계열사와 협업… 2020년 회사수익의 15% 기여
어드바이저리본부 신설 해외부동산 등 투자수익 극대화 기대
인프라 PF·사모채권 등 상품 개발 저금리시대 수익 갈증 해소

“고객과 장기적인 동반성장이라는 전제하에 저축은행, PE 등 계열사와도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회사수익의 15%를 투자은행(IB)사업단에서 낸다는 각오로 뛰고 있죠.”

대신증권의 투자은행(IB)사업단을 총괄하고 있는 정태영 부사장(IB사업단장, 사진)은 향후 비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말 정 부사장이 대신증권 IB사업단을 맡은 후부터 체질개선이 뚜렷하다는 대내외적인 평가가 줄을 잇는다.

그가 맨 처음 손댄 것은 바로 IB본부 조직이다. 기존 주식발행시장(ECM), 채권발행시장(DCM)과 기업공개(IPO),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한 1개 부문 3개 본부에서 구조화본부와 어드바이저리(Advisory)본부를 신설해 2개 부문 5개 본부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조직 확대에 걸맞게 능력 있는 외부 인재 영입에도 공을 들였다.

과거 대우증권 IB본부 시절부터 손발을 맞춘 IB2 부문장 한여선 상무(ECM·DCM·자산유동화 총괄), 어드바이저리 본부장인 최범진 상무가 바로 그 주인공. 성과 면에서도 올 상반기 IB2 본부가 블룸버그 기준 상반기 IPO 대표 주관사 실적 기준 1위를 달성했다. 상반기 IB 2본부가 IPO를 한 기업들은 동양파일, 레이언스, 용평리조트, 한국자산신탁 등이다.

이 외에도 모든 본부의 재무성과가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해 IB사업단이 대신증권에서 차지하는 손익 비중과 기여도가 점차 커지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IB사업단은 140억 원의 세전 이익을 내며 13%의 수익 기여도를 이뤄냈다. 이는 정 부사장이 오기 전 수익 기여도(5~6%)를 두 배 웃도는 성적표다.

또 그간 중소기업 위주의 IB딜을 해오던 범위에서 벗어나 금호그룹, 한화그룹, SK그룹 등 대형그룹사들의 사모 후순위채 발행을 주관하는 등 IB업무 영역을 확장시킨 것.

정 부사장은 특히 어드바이저리 본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복합적이고 비정형적인 프로젝트를 향후 어드바이저리본부에서 전담할 것”이라면서 “사실 어드바이저리는 인수·합병(M&A) 업무라는 공식이 정석이었는데, 증권업계에서 회계법인이나 외국계에 밀려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치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당사의 어드바이저리본부는 M&A는 물론 해외부동산, SOC관련 투자와 M&A인수금융 주선 등 기존 단순중개에서 벗어나 투자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부동산은 다른 증권사들이 눈여겨보는 아시아지역 위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

대신증권 투자은행(IB)사업단은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네트워크모임인 ‘밸런스클럽’도 주관하고 있다. 검증된 자료를 가공해서 IB본부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한편, 반기마다 한 번씩 모임을 하고, 관련 기업이 원하는 IPO 등 재무적 아이디어도 제공해준다.

한편 최근 정부가 내놓은 초대형 IB 육성방안에 따른 대신증권의 전략과 관련 정 부사장은 일단 각 계열사가 구축한 고유 장점을 활용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현재 대신증권의 2015년 말 기준 자기자본은 1조 7300억 원 규모다. 계열사로는 대신PE, 대신F&I, 대신저축은행, 대신자산운용, 대신경제연구소 등을 거느리고 있다.

정 부사장은 통상적인 증권사들의 IB와는 달리 계열사들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신F&I는 한남동 외인아파트 부지 등을 인수하는 등 기존 NPL(부실채권) 투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투자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며 IB사업단과 시너지가 예상된다”며 “대신PE 역시 세컨더리 펀드 소싱, 신기술금융투자 조합 추진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 기회를 확대 중이며, 저축은행도 최근 총 여신 1조 원을 돌파해 이와 관련한 협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 IB업계 맏형으로서 과거 대비 최근 두드러지는 IB업계 트렌드에 묻자 정 부사장은 ‘투자기능의 활성화’를 손꼽았다.

과거 전통적인 IPO수수료 등 발생시장 수수료 기반 IB비지니스에서 근래 M&A 인수금융 제공, 부동산PF의 신용 공여, 구조화의 신용보강, 상장전 지분투자(Pre-IPO) 등과 같이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 부사장은 “이 같은 변화는 결국 유동성은 확대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투자 수익률에 대한 갈증이 현실화된 것”이라면서 “여기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고, 증권사 IB업계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넓어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신증권 IB사업단 역시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내년에는 해외기업의 국내상장, 인프라 관련 PF, 기업들의 사모채권 및 메자닌채권 인수 주선 등 다양한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해 저금리 금융환경에 적합한 상품개발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정 부사장은 “증권사들도 더는 국내에만 안주하지 말고 해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해외 네트워크를 키우고 그에 따른 감을 익히려면 현업에서 뛰는 IB맨들도 변화하는 환경을 재빨리 파악하고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정태영 대신증권 부사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에만 안주하지 말고 해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업에서 뛰는 ib맨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사진제공 대신증권

‘IB 인재 모시기’ 없던 부서도 신설

미래에셋대우 “재계 친밀도 높이자”
부본장직 만들어 구자경 둘째 사위 영입
하나금융은 심재만 전 본부장 선임
중소 증권사도 IB업무 확장 인력戰 가세

정부가 증권사의 수익성 다양화를 위해 투자은행(IB)화를 부추기면서 전문 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초대형 IB와 중소기업특화 IB 등 증권사들이 관련 업무 규모를 확대해 가면서 인력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달 초 IB사업부문 커버리지 본부 부본부장(상무)으로 김현준 전 KB투자증권 이사를 영입했다. 김 신임 상무는 메리츠종금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에서 IB 업무를 전담해온 전문가로 손꼽힌다. 특히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구훤미 씨의 둘째 사위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는 동서지간이다. 미래에셋대우는 IB 업무의 전문성은 물론 재계 이해도와 친밀도가 높은 김 상무의 영입을 위해 최초로 부본부장직을 신설하는 등 공을 들였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7월 자본시장본부장으로 심재만 전 삼성증권 기업금융본부장을 선임했다. 심 본부장은 1996년 코스닥 1호인 KDC정보통신 상장부터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카카오 합병 등 30년 가까이 IB 업계에서 굵직한 거래를 도맡아왔다.

대형사에서 IB 업무를 확장 중인 중소 증권사로 옮기는 사례도 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근무하던 김재연 전 기업금융본부 전문임원과 김대용 기업공개(IPO) 팀장은 각각 IBK투자증권 IB본부장과 동부증권 FAS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중소기업특화 증권사를 준비하고 있는 KTB투자증권도 지난 5월 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고 교보증권에서 IB 업무를 맡던 전문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 KTB금융그룹 계열의 KTB 프라이빗에쿼티(PE)는 신임 사장으로 송상현 전 유니타스캐피탈 한국대표를 선임했다.

NH투자증권은 직접 채용을 넘어 글로벌 투자은행 에버코어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에버코어는 1995년 설립 후 현재까지 2조 달러 규모의 M&A 자문 실적을 가진 미국계 IB다. NH투자증권은 국경 간 M&A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단순 업무 협력이 아닌 상호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업무 성과에 따라 보상도 분배하는 구속력 있는 협력 방식을 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IB 전문 인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NH증권처럼 외국계 IB와 협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초대형·중기특화 IB 제도가 안착하려면 기업 측면에서의 혜택뿐 아니라 인력 양성 측면에서의 인센티브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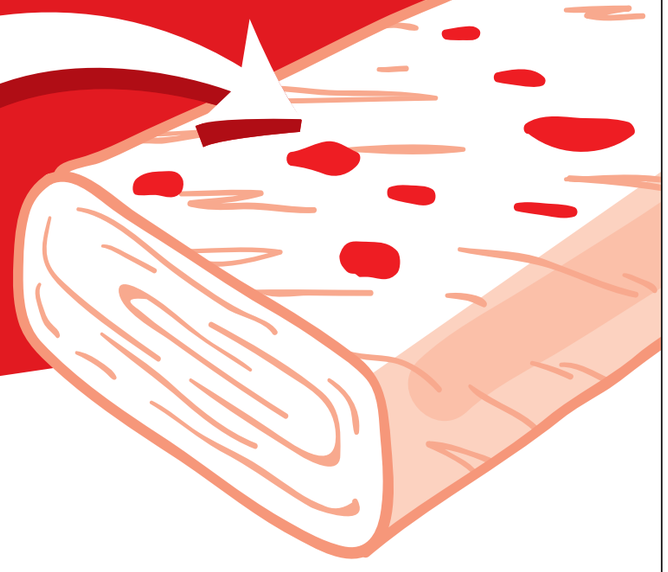
한성기업 Since1963

진짜가 나타났다!

SC 공법 Surface coating

윗면에 국산 붉은 대게살을
코팅하여 진짜 게살의 풍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붉은대게살이 쏙쏙!





4無 첨가

4가지 첨가물을 넣지 않아 행복한
우리가족을 위한 프리미엄 웰빙 간식입니다.

합성보존료(소르빈산칼륨), 산화방지제(L-아스코르빈산나트륨)
팽창제(글루코노델타락톤), 스테비올배당체

색소 0%

크래미眞은
붉은 대게살 자체 색상으로
無색소 제품입니다.

해조칼슘 식이섬유 함유

100% 순식물성 해조칼슘과 식이섬유를
첨가하여 영양까지 챙겼습니다.

• 제품 100 g당 해조칼슘 100 mg 함유 • 제품 100 g당 식이섬유 585 mg 함유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인증 공장에서
위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크래미는 한성기업에서 만드는 고급맛살 브랜드입니다 | 맛있는 쇼핑 & 레시피 www.hsmarket.co.kr

무선통신 시험인증 업계 1위… 200개국 인증 서비스

에이치시티

美 연방통신위도 인정한 기술력
통신·배터리·車·신뢰성·의료·환경
6개 시험 인증·교정 센터 설립
내년 국내 첫 민간 인증기관 목표
내달 코스닥 상장 '성장날개' 단다

국내 시험인증·교정산업 기업 에이치시티가 지난 1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에이치시티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시험인증·교정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에이치시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험인증과 교정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1983년 현대전자산업의 품질보증실에서 분사해 지난 2000년 설립됐다. 업계 1세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원진과 국내 최다 전자파흡수율(SAR) 실험실 등 독보적인 인프라를 통해 국내 시험인증·교정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수찬 대표이사

에이치시티의 사업 분야는 시험인증과 교정사업으로 나뉜다. 시험인증사업은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인증을 통해 국가마다 규정하고 있는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지 입증해주는 엔지니어링 컨설팅 사업이다. 에이치시티는 세계 최초로 휴대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저주파대역(450Mhz) 유럽(CE) 인증과 3.5GHz 와이브로 통신기기 CE 인증에 성공하는 등 국내 최고의 무선통신 시험소로 성장했다. 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전 세계 주요 인증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0여 개국의 인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교정사업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와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표준기와 비교, 진단하는 사업이다. 2015년 국내 시험인증기업의 93%가 에이치시티에서 교정을 받을 만큼 업계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16년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NI(National Instruments)사의 공식 교정기관으로 지정돼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한 독점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I사가 판매하는 모듈형계측기는 여러 항목의 검사가 가능한 장비로 2012년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14.9%에서 2018년 29.4%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교정사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시험인증과 교정사업의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2015년 매출액 242억 원, 영업이익 54억 원, 당기순이익 43억 원을 달성했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매출액 142억 원, 영업이익 36억 원, 당기순이익 30억 원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에이치시티는 무선통신 시험인증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업계 1위 기업이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은 최신 통신기술의 국제적 공인이자, 스마트폰의 글로벌시장 판매를 위해서는 필수 관문이다. 현재 국내 정부지정 시험기관은 모두 43곳이 있으나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시험이 대응 가능한 곳은 10곳 정도로 압축된다. 그중에서도 에이치시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648건의 가장 많은 시험을 수행했다. 또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화웨이 등 국내외 메이저 스마트폰 업체를 장기 고객사로 확보하며 고객사로부터 업계 최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이치시티는 글로벌 시험인증·교정 선도기업(Top Tier)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신, 배터리, 자동차, 신뢰성, 의료, 환경의 6개의 시험인증·교정 센터를 설립하고 분야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험인증·교정 기관으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서비스 생산능력(CAPA)은 신규 증설을 통해 2배로 확대하고 배터리, 자동차, 환경 등으로 사업영역 확대와 미국, 베트남 등 글로벌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에이치시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험인증과 교정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1983년 현대전자산업의 품질보증실에서 분사해 지난 2000년 설립됐다. 사진은 에이치시티 본사 전경. 사진제공 에이치시티

또 민간 인증기관으로의 위상 강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선진국은 민간기업이 시험뿐만 아니라 인증서까지 발급해 주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국내 시험인증산업도 정부 주도하에 글로벌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정부인증기관에서 민간인증기관으로 중심이전 등 민간기관 육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에이치시티는 무선통신분야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2017년 국내 최초 민간 인증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수찬 에이치시티 대표는 "에이치시티는 인류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주력사업인 무선통신 분야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향후 해외시장과 신규사업 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 시험인증·교정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에이치시티는 오는 28~29일 수요 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 후 다음 달 6~7일 청약을 받아 10월 중순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공모 주식수는 113만6460주이며 희망 공모가밴드는 1만9200~2만2500원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Winners Club 용평리조트 용평리조트 ALL SEASONS RESORT

콘도 분양사업 금빛 실적… 평창올림픽 향해 순항 중

2년 뒤 알파인스키 등 5종목 경기 열려
제2영동고속·KTX올림픽선 개통 수혜
버치힐테라스·올림픽빌리지 분양 호조
상반기 분양 매출 440억… 155% 늘어


정창주 대표이사

프리미엄 리조트 운영·개발 전문 기업 용평리조트가 콘도 분양사업을 중심으로 실적 상승의 성장 가도를 달리는 한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향해 순항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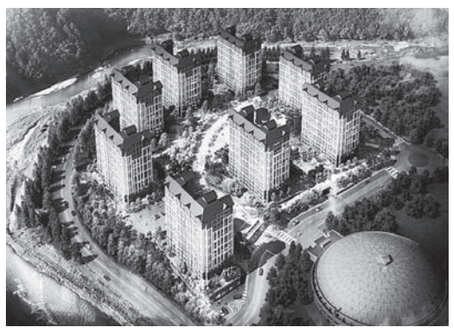
업계에 따르면 브라질의 7월 무역수지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인 45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번 리우 올림픽 기간에 국내외 관광객이 117만 명에 달했으며, 관광수입은 한화로 약 1조4000억 원을 기록, 브라질 경제의 새로운 모멘텀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집중되고 있다. 용평리조트는 상장 전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의 최대 수혜주로 꼽혔다. 용평리조트는 동계올림픽의 꽃인 알파인스키 5개 세부 종목의 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다양한 종목의 테스트 이벤트를 개최해 일찍이 이용객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 올림픽을 대비해 건설 중인 제2영동고속도로와 KTX올림픽선이 개통되면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용평리조트 관계자는 "교통망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고 올림픽 이후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많아지면 리조트 운영 수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리조트 운영 수입과 다양한 타깃을 대상으로 기획 및 실행 중인 프리미엄 콘도 개발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향후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평리조트는 지난 5월 국내 리조트업계 최초로 상장에 성공한 후, 첫 반기실적 발표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증명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상승한 951억 원, 영업이익은 107% 상승한 95억 원, 순이익은 91% 증가한 30억 원을 달성했다.

특히 골프장 조망권의 프리미엄 콘도인 버치힐테라스 레지던스와 국내 최초 리조트형 아파트인 올림픽빌리지 분양 호조로 인해 상반기 분양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증가한 440억 원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용평리조트는 상장 전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의 최대 수혜주로 꼽혔다. 용평리조트는 동계올림픽의 꽃인 알파인스키 5개 세부 종목을 비롯해 2016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다양한 종목의 테스트 이벤트를 개최한다. 사진은 올림픽빌리지 조감도. 사진제공 용평리조트

용평리조트는 2015년 총 콘도 객실 기준으로 약 83%를 공유제로 분양했다. 국내 대부분의 체인형 리조트가 회원제로 분양을 진행하는 것과 차별화된 모습이다. 분양자는 공유제를 통해 부동산을 등기 이전받을 경우 자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큰 부동산, 그리고 믿을 만한 기업의 콘도에 수요가 몰리기 마련이다.

즉, 용평리조트의 높은 공유제 분양 비율은 용평리조트 분양 상품의 우수한 부동산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도 용평리조트는 프리미엄 콘도를 공유제 형식으로 분양하고 기존 회원제 콘도를 공유제로 전환하는 등 공유제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용평리조트 관계자는 "최근 중국을 비롯한 해외 거대 자본의 타깃이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라며 "강원도가 전략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중국 자본 투자 유치에 집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고객과 기술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성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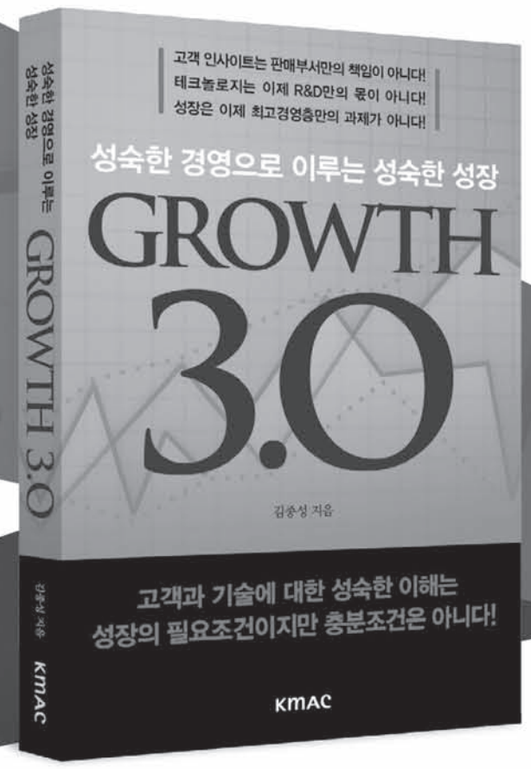
성숙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4대 역량!

1 **혁신력** :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 성장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각 기업의 전통과 사업 무대, 전략 등과 연계되어 갖추어져 있다.

2 **예측력** : 시장에 대한 예측력은 성장 기업이 가지는 공통적인 역량이다. 마켓 인사이트에 기반한 예측력과 추진력은 핵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미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3 **활용력** : 성장에 능한 기업들은 성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 자신들이 가진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브랜드, 유통망, 고객 관계, 기술, 네트워크 조절점 등 모든 자산을 성장에 활용한다.

4 **적응력** : 성장에 능통한 기업들은 서로 다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결합, 연결, 혹은 분리시킴으로써 성장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GROWTH 3.0
김종성 지음 | 값 15,000원

●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 절찬리 판매중! 다부수 구매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 : Tel 02-3786-0184 / Fax 02-3786-0107 / njh@kmac.co.kr

KMAC

〈인베스투스글로벌〉

'금융계 마당발' 김재록 회장 하이투자증권 인수 출사표

지난주 인수의향서 제출
대만계 KGI 경영진 만나
전략적투자자 유치 요청
LIG투자와 2파전 양상



'금융계 마당발'로 꼽히는 김재록〈사진〉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이 하이투자증권 인수전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로써 LIG투자증권과 김 회장이 이끄는 사모펀드(PE)인 인베스투스글로벌 간 2파전 양상으로 하이투자증권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주 하이투자증권 매각 주관사인 EY한영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LOI를 공식적으로 접수한 곳은 LIG투자증권과 인베스투스글로벌 두 곳이다.

앞서 김 회장은 아이엠투자증권(현 메리츠종금증권) 인수전 당시에도 LOI를 내며 금융투자사 인수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현재 인베스투스글로벌은 대만계 KGI증권을 전략적투자자(SI)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김 회장이 최근 대만의 KGI증권 경영진을 직접 만나는 등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적극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투자은행(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과거 솔로몬저축은행에 증권업 라이선스를 매각한 KGI증권이 인베스투스글로벌과 손잡고 하이투자증권 인수 추진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KGI증권 본사가 이번 없이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적극 추진한다면, 이번 인수전에서 가장 큰 복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계 자본이 국내 인수합병(M&A)시장 큰 손으로 떠오른 시점에 KGI증권이 다시금 한국시장 진출에 나설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내 증권업계에서 성업 중인 대만계 증권사로는 지난 2014년 동양사태 당시 동양종금증권을 인수한 유안타증권이 대표적이다. 중국 본토 증권사인 자오상증권(초상증권) 역시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승인을 받고 연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한국시장에서 영업을 하다 증권업 라이선스를 중신증권에 매각한 프랑스계 크레디아그리콜도 최근 영국계 RBS(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증권을 인수해 다시금 한국시장에 진출한다"며 "한국시장에 대해 일부 외국계증권사들이 나름 밝게 보고 있다. 특히 중국계의 관심이 큰 상황에서 KGI가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컴백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자구안 일환으로 매물로 나온 하이투자증권은 하반기 M&A업계 대어로 꼽혔다. 하지만 정작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된 한국금융지주, 일본계 오릭스 PE, 키움증권 등이 잇달아 발을 빼면서 흥행이 다소 식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었다. 이에 매각 주관사인 EY한영은 LOI 접수 마감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아 기자 kakim@

비과세 해외펀드 잘나갔네~ 출시 반년만에 8000억 뭉칫돈

상위 10개상품 절반이상 몰려
삼성中본토형 수익률 22% 1위
베트남도 10%이상 고수익 인기

출시 반 년을 맞이한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로 8000억 원에 가까운 뭉칫돈이 몰렸다. 또한 투자자들은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중국과 베트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의 누적 판매금액이 7894만3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판매 규모 상위 10개 펀드에 4147억 원이 설정돼 전체 판매 비중의 절반 이상(53%)이 몰렸다.

중국지역 펀드의 설정액은 총 1613억 원으로 상위 10개 펀드 중 비중 1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지역 펀드에는 1257억 원이 몰렸다. 이어 글로벌펀드와 미국펀드에도 각각 1033억 원, 244억 원이 몰렸다.

설정 규모 상위 10개 펀드 중 중국 관련 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눈길을 끈다. 수익률 1위는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 펀드로, 484억 4300만 원의 설정액과 22.4%의 수익률을 거뒀다. KB중국본토A주 펀드는 수익률 16.4%로 2위에 올랐다. 수익률 3위는 삼성CHINA2.0본토 펀드로 수익률은 14.7%이다.

베트남펀드 또한 10% 이상의 고수익을 연출했다. 출시 이후 가장 큰 설정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 펀드는 1062억 원이 몰려 13.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리베트남알파 펀드는 수익률 11.1%를 거뒀다.

출시 이후 설정규모 상위 10개 펀드 현황

순위	펀드명	수익률(%)
1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	13.4
2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	6.1
3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	22.4
4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Share	9.8
5	KB중국본토A주	16.4
6	신한BNPP중국본토RQFII	4.3
7	AB미국그로스	8.7
8	한화글로벌헬스케어	7.7
9	유리베트남알파	11.1
10	삼성CHINA2.0본토	14.7



한편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판매 규모는 증권사가 은행을 앞섰다. 지난달 말까지 증권사와 은행은 각각 4582억 원, 3206억 원어치의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를 판매했다. 반면 계좌수는 은행이 11만 개, 증권사가 8만1000개를 확보했다. 계좌당 납입액은 증권사가 560만 원, 은행이 290만 원을 기록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Stock blog

바코드 스캐너 제조사 '대성엘앤에이' 매물로

내달 4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

바코드 스캐너 제조업체인 대성엘앤에이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성엘앤에이의 매각 주관사인 대주회계법인은 이날 매각 공고를 내고 오는 10월 4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매각 방식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 자본 유치 등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3년 설립된 대성엘앤에이는 대성산업의 계열사로 바코드 스캐너를 비롯해 전기, 전자제품의 제조·판매와 소프트웨어 개발·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 이 회사는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의 장남인 고(故) 김정한 라파바이오 대표가 이끌었으며 2015년 대성산업에서 분리됐다.

그러나 김 대표가 지난 5월 돌연 심장마비로 별세하면서 경영난에 봉착하고 지난 8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이에 법원이 주관사를 선정하고 매각 작업에 나선 것이다.

대성엘앤에이는 우편 자동화 기기의 제조·판매를 주 영업으로 삼고 있다.

김경아 기자 kakim@

더이상 안 통하는 '북한 리스크'

5차 북핵실험 당일 코스피 1.25% 하락 그쳐
잇단 학습효과로 2013년 이후 회복속도 빨라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 것 같은데…. 아 이제 망했네. 늦기 전에 다 팔아야 할까? 외국인이 다 도망가는 것 아냐?"

지난 금요일 아침,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풋내기' 투자자인 지인이 푸념했다. 사유를 들어보니, 북한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지역이 과거 핵실험을 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무슨 종목을 들고 있는지 물어봤다. 그가 보유한 종목은 OO증권과 OO화학이었다. 나는 그 친구에게 예언자라도 된 것마냥 "걱정 마, 북한 때문이라면 일주일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라며 호언장담했다.

국내 증시에 북한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고 있다. 수년간 학습효과 탓에 북한의 위협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축소됐다. 주식으로 한정한다면 더욱 그렇다.

과거 북한 관련 우려로 코스피가 급락했던 경우는 하루 새 3.43% 떨어졌던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과 2.21% 추락한 제1차 연평해전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일 사망에 급락한 지수는 불과 이틀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고, 연평해전 때는 하루 만에 이전지수를 회복했다.

연속된 핵실험도 마찬가지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학습효과가 더해지며, 지수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당시 코스피는 2.4% 하락해 이전지수를 되찾는 데까지는 엿새가 필요했고, 2차 핵실험은 원상복귀에 2주나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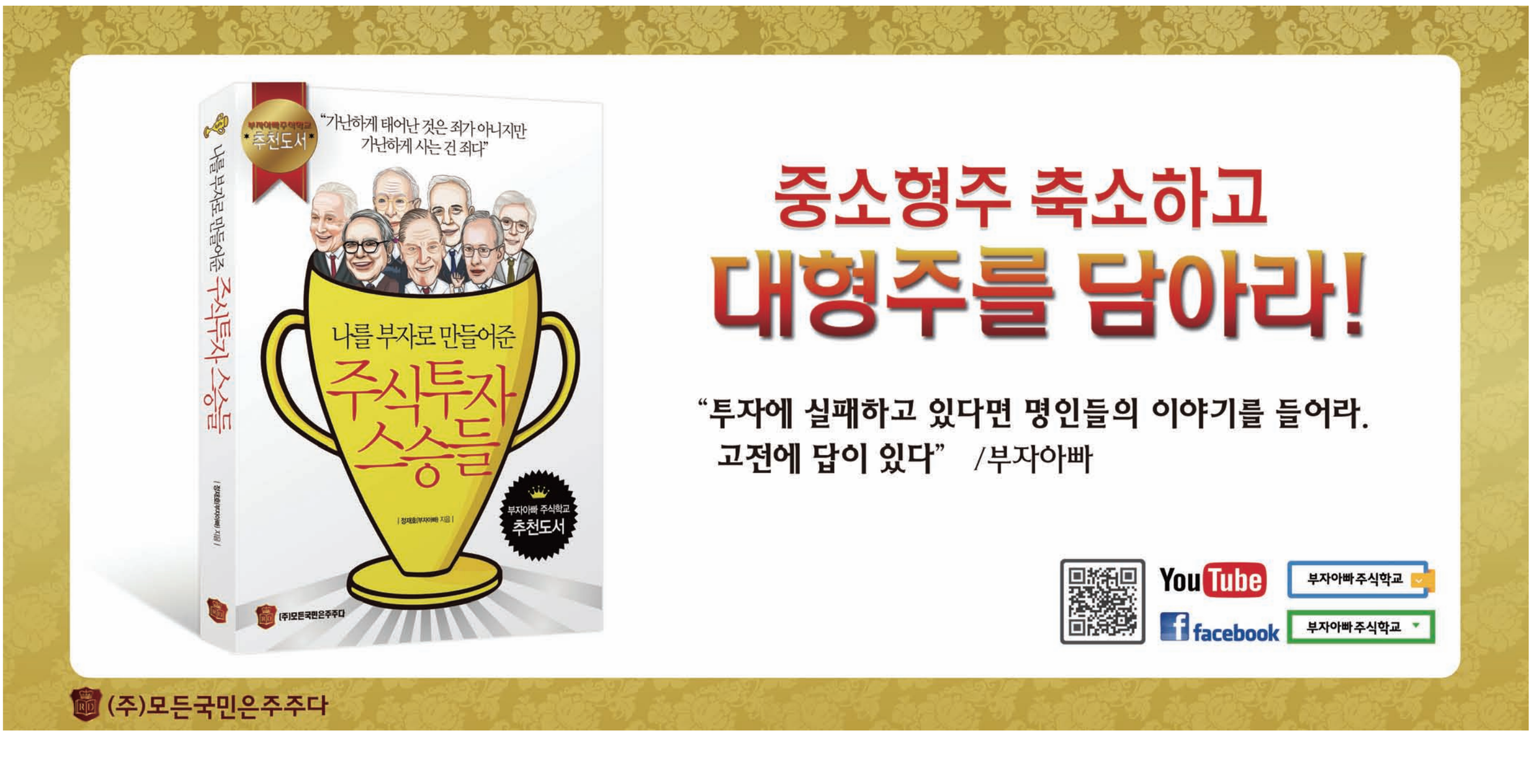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속지 않았다.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3년 2월 12일 코스피는 핵실험에도 0.3%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전 지수의 회복에는 불과 하루가 소요됐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때는 원인불명의 지진일 때 급락했던 코스피가 북핵실험으로 판명나고 나서 되레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9일 핵실험은 다섯 번째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5% 내렸다. 이어 12일에는 2.28%나 떨어졌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여파와 미국의 금리 인상 경계감이 우연히 겹쳤을 뿐 대부분 전문가들도 북한을 주요 원인으로 삼지는 않는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오히려 소폭 하락했고, NDF(역외선물환) 시장의 원·달러 환율 흐름도 큰 변동이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핵 문제로 인한 추가 하락 우려는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원인으로는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요소와 지배구조, 회계 불투명 등이 있다. 하지만 북핵실험은 이제 빼도 되지 않을까?

남주현 기자 jooh@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전후공정 원스톱 진행…내년 1200억 매출 성장 기대

현장 르포 생산라인 베트남 이전하는 삼우엠스

아산공장 생체인식모듈 패키징, 모기업 크루셜텍과 합쳐
고객사 피드백 빨라져 레노버·화웨이·소니 등 반응 '만족'
주력사업 모바일 케이스 사출분야 기술개발·품질개선도


삼우엠스는 이번 달부터 아산에 있던 생체인식모듈 전 공정(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 모회사 크루셜텍과의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현지 근로자들이 작업에 열중하는 모습.

지난 9일 베트남 옌퐁시에 위치한 크루셜텍 생산라인 입구에 들어서자 자동문 위에 두 개의 간판이 눈에 띄었다. 왼쪽에는 삼우엠스, 오른쪽에는 크루셜텍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다. 지난해 11월 방문했을 당시 크루셜텍 이름만 있던 것과 사뭇 달라진 풍경이다.

라인으로 들어서자 기존 크루셜텍 라인에서 국내 및 현지 노동자들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그동안 빈 곳이었던 한쪽에는 삼우엠스의 고가 장비들이 놓여 있다. 아직 가득 차진 않았지만, 이미 들어온 장비들은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다.

홍성덕 삼우엠스 베트남법인장은 "이번 달부터 아산에 있던 삼우엠스 생체인식모듈 전 공정(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법인장은 이어 "캐파는 현재 월 400만 대 수준이나 점차 늘려서 크루셜텍 베트남 법인 BTP 캐파인 월 1000만 대 수준까지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우엠스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케이스 사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매출처 다원화를 위해 생체인식 모듈패키징 신사업 시작, 크루셜텍 BTP 전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억 원 유상증자 결정, 아산에 있던 BTP 전 공정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우엠스 베트남 현지 직원들은 추석도 반납하고 라인 이전과 생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삼우엠스가 베트남으로 전 공정 라인을 이전하는 이유는 모회사인 크루셜텍과 연계해 원가를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홍 법인장은 "아산에서 전 공정 작업을 진행할 때 리드타임이나 고객사 피드백이 아무래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베트남으로 라인을 이전하면서 고객사 대응이 빨라지고, 운송비와 인건비 감소 등으로 원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레노버, 화웨이, 소니 등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회사 측 설명이다.

김돈수 크루셜텍 베트남 법인장은 "최근에 레노버가 방문해 전 공정(삼우엠스)과 후 공정(크루셜텍)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무척 만족해했다"며 "이달 말에는 화웨이와 소니에서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삼우엠스의 생체모듈패키징 사업 매출은 6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이후 최소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홍성덕 법인장은 "단순 패키징 작업을 수행하는 외주업체 역할에서 직접 웨이퍼를 구매하고 생산하게 되면서 매출액이 최소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 법인장은 "크루셜텍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BTP 신제품 및 생체인식 모듈의 전 공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생체인식 모듈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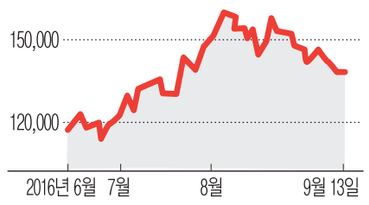
주력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게 홍 법인장의 각오다. 그는 "주력사업인 모바일 케이스 사출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양산품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사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 사출 기술을 응용한 논-모바일 분야 사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고객사 신뢰성 테스트도 통과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옌퐁(베트남)=송영록 기자 syr@

SK머티리얼즈, 그룹 편입후 첫 회사채 '흥행 기대감'

내달 350억 규모 자금조달
연말 400억 만기도래 상환
특수가스 시설 455억 투자
年 생산능력 600톤 전망

SK머티리얼즈 주가 추이
(단위: 원)



SK머티리얼즈(舊 OCI머티리얼즈)가 35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SK그룹에 편입된 이후 발행하는 첫 회사채로 흥행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머티리얼즈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SK증권을 통해 다음 달 중장기 자금 조달을 위한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에 나서기로 했다. 발행금리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SK머티리얼즈는 이번 회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연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SK머티리얼즈는 오는 12월 400억 원 규모 사모사채의 만기가 도래한다.

또 이 회사는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SK머티리얼즈는 SK그룹에 편입된 이후 투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SK머티리얼즈의 올해 상반기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28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5억 원)보다 262% 늘었다. SK머티리얼즈는 올 초 SKC에어가스(現 SK에어가스)를 인수한 바 있다.

이번 회사채 발행 자금으로는 특수가스(WF6) 시설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SK머티리얼즈는 특수가스(WF6) 시설을 증설한다고 발표했다. 투자금액은 455억 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12.1%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WF6 수요 증가 대응과 판매 확대를 통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증설로 인해 WF6 생산능력은 연간 600톤이 늘어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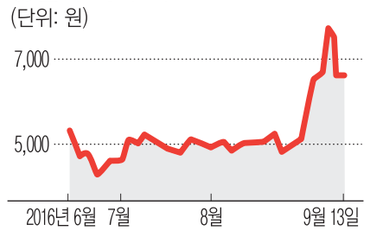
회사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 자금으로 연말 만기인 사채를 상환하고 기타 운영자금에 쓸 예정"이라며 "자금 중 일부분은 증설 투자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사채 발행은 SK머티리얼즈가 SK 간판을 달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만큼 시장의 우호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광림·쌍방울 컨소시엄, 나노스 인수 우선협상자에

4월 법정관리 신청후 회생절차
부채 청산으로 재무구조 개선
재상장 되면 평가차익 기대감
최근 필름필터 수율도 긍정적

광림 주가 추이
(단위: 원)



크레인과 특장차 제조업체인 광림은 쌍방울과의 컨소시엄이 나노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광림은 나노스 인가 전 인수·합병(M&A) 공고에 따라 쌍방울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노스는 광학필터 전문 회사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그리고 핸드셋 카메라모듈사다. 강점인 블루필터 대신 필름필터를 삼성전자가 채택해 매출이 감소했고, 올해 4월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나노스는 필터시장에서 가장 큰 생산능력을 보유 중에 있으며, 경쟁 생산 업체는 상장사 1곳과 비상장사 1곳에 불과하다. 진입장벽이 높은 회사라는 장점이 있어 7곳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다수가 입찰에 참여한 이유는 최근 필름필터 수율이 경쟁사 수준 이상으로 개선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또 나노스의 OIS(광학손떨림방지, Optical Image Stabilization)용 GaAs(갈륨비소) 홀센서는 일본 아사히카세이와 나노스 단 2개 회사가 기술을 갖고 있으며, 현재 삼성향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기대된다.

나노스는 법원회생을 통해 부채가 청산돼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올 상반기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상각했다. 이에 따라 광림과 쌍방울은 나노스가 재상장할 경우 상당한 평가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림은 1979년 설립돼 전기공사와 방산관련 특장차를 생산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약 10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나타내는 회사다. 최근 사업 다각화와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IT 업종에 진출하게 된다.

광림 관계자는 "나노스의 필름필터 수율이 경쟁사 수준 이상으로 개선됐으며, 중저가 폰 시장에서 블루필터 매출이 회복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필터시장이 진입장벽이 높으며,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가 3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쉬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종목돋보기

시큐브, 세계 첫 생체수기 서명 인증
日기업과 총판계약 이어 현지법인도

NEC에 보안솔루션 납품
최근 지문유출 보안우려에
추가 보조인증 수요 증가세

세계 최초 FIDO(온라인 인증 국제표준) 생체수기 서명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큐브가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현재 시큐브는 삼성전자에 클라우드 기반 보안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서버보안과 통합계정권한관리 분야 점유율 1위 업체다.

13일 시큐브 관계자는 "일본 총판기업인 NEC를 통한 총판과 병행해 현지 법인을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핀테크 시장이 지문인증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문 유출에 따른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생체수기 서명 인증이 인증 보조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며 일본 현지법인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일본은 5세대 이동통신(5G)으로 빠르게 바뀌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권의 생체 인증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이에 맞춰 정보보호도 강화되면서 관련 보안 사업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지문 인증만으로는 보안 우려를 잠재울 수 없어 추가적인 보조 인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SGA, 한국전자인증 등과 함께 보안인증 관련주로 꼽히는 시큐브는 현재 일본 총판 기업인 NEC를 통해 자사 보안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지만 올해는 현지 법인 설립으로 판매처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내 1위 기존 서버보안 솔루션, 통합계정관리 솔루션 외에 생체수기서명 인증기술(세계최초) 등까지 확대 보급, 일본 인증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시큐브 관계자는 "일본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주요 타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미스터블루, 中에 웹툰 콘텐츠 판매

현지 만화플랫폼 운영 상해동석망락고분에 45개 작품 공급

미스터블루가 중국의 콘텐츠 유료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웹툰 플랫폼 전문기업 미스터블루는 중국의 인기 만화플랫폼 '대각충'을 운영하는 상해동석망락고분유한공사(이하 상해동석망락고분)와 손잡고 만화와 웹툰 콘텐츠 유료화 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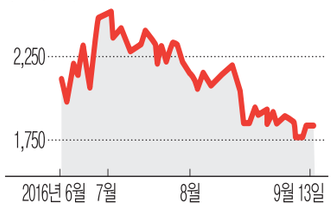
미스터블루는 중국의 인기 만화 앱 '대각충'과 중국의 3대 커뮤니티서비스 '바이두티에바'에 자사의 웹툰 콘텐츠 45개 작품을 공급하고 유료판매에 대한 수익을 공동 배분키로 했다.

이로써 미스터블루는 지난 3월 심천 518 애니메이션에 3편의 웹툰 공급과 파생관련 협업에 이어 중국 내 콘텐츠 유료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미스터블루의 사업파트너인 '상해동석망락고분'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만화콘텐츠 전문기업이다. 인기 만화플랫폼 '대각충'에 기반을 둔 만화 콘텐츠 기획·서비스, 관련 게임을 비롯한 영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대각충은 이번 미스터블루와의 콘텐츠 공급계약을 기점으로 한국만화 섹션과 일본만화 섹션을 추가하고 웹툰 유료화를 전격 선언했다. 향후 중국 내 콘텐츠 유료화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각충이 마스터 콘텐츠 제공(MCP)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두티에바'에도 K-웹툰을 기반을 둔 콘텐츠 유료화 사업의 선봉에 서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시노펙스 주가 추이
(단위: 원)



시노펙스, 70억 규모 고정수처리 장비개발 정부과제 주관사 선정

시노펙스가 70억 원 규모의 환경부 '첨단지능형 고도정수처리 장비개발 과제'에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는 고도정수처리 장비는 기존 재래식 방식의 장비로는 제거되지 않는 이온물질까지 제거할 수 있는 나노막(NF)·저압역삼투(LPRO) 기반의 고도화된 시스템이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른 원수의 수질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정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단위 지역의 맞춤형 정수 공정과 이에 맞는 분리막 소재 및 모듈 개발을 포함한다. 일괄적으로 진행하던 정수처리 시스템 대비 공정운영 비용을 2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단위지역에 최적화된 정수설비이다.

시노펙스는 이번 '해외 진출형 고도정수처리 장비개발'에 자체 개발한 멤브레인 기술을 이용한 여과 방식을 적용해 기존 정수처리시스템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시노펙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하수도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및 중동지역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 수처리 시장 공략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시노펙스는 이번 나노멤브레인 기반의 고도정수 기술개발을 통해 오염 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전국의 노후화된 정수장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낙후지역 노후정수장 정비 계획'에 의하면 전국 495개 상수도 정수장 중 21.6%에 이르는 107곳이 오염 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당장 설비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 장의 유리
스스로 빛을 내다

TV, 작품이 되다

음식을 담기도 하지만
별을 담기도 하기에

냉장고, 작품이 되다

달은 고요할 때
가장 아름답다

세탁기, 작품이 되다

비는 반드시
청명한 하늘을 데리고 온다

공기청정기, 작품이 되다

초프리미엄 가전,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
LG SIGNATURE

